



놀이 박상, 시대의 기억과 현대적 지향

제8회

호남문헌 심층연구
학술대회

2025. 6. 26 목 13:30
광주광역시 서구청 들불홀

주최
한국학호남진흥원

주관
한국학호남진흥원 | 광주 서구문화원 | 충주박씨 문간공파 종중



CONTENTS

제8회 호남문헌 심층연구 학술대회

놀이 박상, 시대의 기억과 현대적 지향

개회사 및 축사

홍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
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박종석	충주박씨 문간공파 종중 회장
정인서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장

발표문	박명희	놀이 박상의 가족시에 나타난 감성 양상 07 전남대학교
	정하정	기억되는 이름, 기념되는 장소 27 -놀이 박상의 총절에 대한 기억과 표상 형성에 관하여- 계명대학교
	김광명	『놀이집』의 현대적 활용 방안 42 성균관대학교

좌 장	김신중	전남대학교
-----	-----	-------

토론문	강동석	『놀이 박상의 가족시에 나타난 감성 양상』에 대한 토론문 · 71 한국학호남진흥원
	강성규	『기억되는 이름, 기념되는 장소』에 대한 토론문 73 고려대학교
	정인서	『놀이집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토론문 75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놀이 박상,
시대의 기억과 현대적 지향

📖 << 발표문

놀이 박상의 가족시에 나타난 감성 양상

박명희 전남대학교

기억되는 이름, 기념되는 장소

-놀이 박상의 총절에 대한 기억과 표상 형성에 관하여-

정하정 계명대학교

『놀이집』의 현대적 활용 방안

김광명 성균관대학교

눌재 박상의 가족시에 나타난 감성 양상

박명희(전남대학교)

목 차

1. 머리말
2. 가족시에 나타난 감성 양상
 - 1) 조부와 형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
 - 2) 죽은 아내에 대한 슬픔과 애뜻함
 - 3) 아우와 아들에 대한 사랑과 바람
3. 감성 표출의 미학적 의미
4. 맺음말

1. 머리말

눌재 박상(1474 ~ 1530)은 광주의 芳荷洞(현 광주광역시 서구 서창동 절골마을)에서 태어났다. 박상의 집안은 원래 대대로 개성에 살았는데, 할아버지 朴蘇 때에 지금의 충청도 대전 일대로 세거지를 옮겼다. 박소는 다섯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중에 넷째 朴智興이 박상의 아버지이다. 박지흥은 세종 때에 진사가 되었으나 얼마 뒤에 세조가 일으킨 왕위 찬탈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아 벼슬을 포기하고, 처가가 있는 광주 봉황산 아래에 터를 잡아 살기 시작하였다. 박지흥은 개성서씨와의 사이에서 禎, 祥, 祐 세 아들을 두었다. 박상을 기준으로 박정은 7년 연상이고, 박우는 2년 연하이다. 아버지 박지흥은 훗날 좌찬성의 벼슬을 증직 받아 찬성공이라 부르고 있고, 형님인 박정은 荷村이라는 호를 가져 하촌공, 동생인 박우는 六峯이라는 호를 가져 육봉공이라 부르고 있다.

박상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15세 때 아버지가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때 박정의 나이는 22세였고, 박우의 나이는 13세였다. 이로써 박정이 아버지를 대신해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두 동생들도 형님을 잘 따르고 받들어 학문 탐구에 정진하니, 학문이 나날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송나라에 ‘父子三蘇(蘇洵·蘇軾·蘇轍)’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兄弟三朴’이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박정은 그의 나이 32세 때 세상을 떠났다. 이때 박상의 나이는 25세였다. 형님이 세상을 뜬 뒤에 박상은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어머니는 물론이요, 동생 박우까지 살피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것이다. 형님이 그랬던 것처럼 박상도 동생에게 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박상의 보살핌을 잘 받은 덕분에 박우는 그의 나이 32세 때 사마시에 합격하고, 35세 때 식년 문과에 급제한 뒤에 벼슬에 나아간다.

한편, 박상은 우선 현령 柳宗漢의 딸인 晉陽柳氏와 혼례를 올린 뒤에 최소 3남2녀를 둔 것으로 확인된다. 박상의 「연보」 33세 조에 따르면, 박상은 진양유씨와의 사이에서 2남2녀를 두었다라고 하며, 김해 부사를 역임한 장남 敏齊와 진사 차남 敏中을 언급하였다.¹⁾ 그런데 박상이 지은 「擬自悼賦」小序에 따르면, “계해년 겨울에 딸이 죽었고, 지난

1) 朴祥, 『訥齋集』附錄 卷4, 「年譜」 33세 조, 淑人 有美德淑行 生二男二女 長敏齊 金海府使 次敏中 進士 能世其業.

해 여름에 딸과 아들이 죽었으며, 겨울에 또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²⁾라 했으니, 장남 민제와 차남 민중을 고려하면 원래 최소 3남2녀를 두었음에 분명하다. 이와 같이 박상은 진양유씨 사이에서 최소 3남2녀를 두었는데 1남2녀를 잃었고, 그리고 이어서 진양유씨마저 잃었다. 진양유씨를 잃은 박상은 河東鄭氏 생원 鄭稅의 딸과 다시 혼례를 올려 監役 일을 맡은 敏古를 두었다.

이상과 같이 박상은 위로 조부 박소와 부친 박지흥, 형 박정을 두었고, 아래로 아우 박우와 세 아들 박민제·민중·민고 등을 두었다. 그리고 부인 진양유씨와 하동정씨를 두었다. 15세 때 부친 박지흥을 여의고, 25세 때 형 박정마저 세상을 뜨자 박상은 홀로 된 모친을 모시며 아우와 자식들까지 건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지녔을 것이다. 그 중에 특히, 홀로 된 모친을 위하는 마음은 컸다. 「연보」에 따르면, 35세 때 임피 현령, 39세 때 담양 부사, 44세 때 순천 부사 등 모친이 가까이 계시는 곳에서 벼슬살이를 했는데, 모두 스스로 원해서 그리 했던 것이다. 순천 부사 시절 처음에는 관아에서 모친을 직접 모셨으나 모친이 불편함을 느껴 다시 방하동 본가로 돌아가 가까이에서 시중들면서 冠帶를 풀지 않고 藥物은 입으로 맛보지 않고서는 감히 드리지 않았다. 당시 흥덕 현감으로 부임했던 박우 역시 본가에 와서 모친을 위해 약 시중을 하였다. 그러나 두 아들의 보살핌을 뒤로 한 채 박상의 나이 44세(1517, 중종12) 10월에 모친은 세상을 떠났다. 모친이 세상을 떠날 당시 박상의 모습을 「행장」에서는 “정축년(1517) 봄 순천 부사로 나갔다가 겨울 10월에 모친상을 당해 3년 동안 侍墓하였는데 禮文보다 지나치게 喪禮를 지켜서 뼈가 앙상할 정도로 몹시 슬퍼하여 지팡이를 짚고서야 일어설 수 있었다.”³⁾라 했으니, 마지막까지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상은 총 620제 1,200여 수에 이르는 시를 남겼다. 그중에서 위와 아래의 가족들을 돌보며, 기회가 닿으면 가족시 작품을 남겼는데, 총 16제 20수정도 된다.⁴⁾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이 박상이 가족들을 위해 지은 시를 ‘가족시’라 명명하려고 한다.⁵⁾ 사실 ‘가족시’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용상 가족들을 위해 지은 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시’라 부르려 한다. 이 16제 20수의 가족시는 박상을 기준으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시 세 층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층위에 해당하는 가족시는 박상보다 위에 자리하는 조부 박소와 형 박정과 관련한 작품이고, 두 번째 층위에 해당하는 가족시는 박상과 수평적 위치에 놓인 진양유씨와 관련한 작품이며, 세 번째 층위에 해당하는 가족시는 박상보다 아래에 자리하는 아우 박우와 두 아들 민제와 민중과 관련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러한 각 층위의 가족시에 드러난 감성이 다른데, 이는 곧 박상이 각 층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느낌을 각각 다르게 시로 드러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다

2) 朴祥, 『訥齋集』 卷1, 「擬自悼賦」 小序, (진략) 及癸亥冬 哭女 往年夏 哭女與男 冬又哭妻 (후략).

3) 朴祥, 『訥齋集』 附錄 卷1, 「行狀」, 丁丑春 出守順天府 冬十月 丁內憂 居廬三載 執喪過禮 哀毀骨立 杖而後起.

4) 가족시 16제 20수에 「의자도부」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그 문체가 賦로서 운문과 산문의 중간적인 성격을 띠어 한시로 포함시키기에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의자도부」은 그 내용이 가족 전체의 哀史를 담고 있기에 자료로는 활용하였다.

5) 지금까지 이룩한 박상의 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 성과물 중에 박상의 가족시를 연구한 경우는 박준규의 논문(『訥齋 朴祥의 詩文學論攷』, 『놀이 박상의 문학과 의리 정신』, 광주직할시, 1993, 157~160쪽)이 있을 뿐이다. 다만 박준규는 「협곡도 삼가」만 집중 논의한 아쉬움이 있다. 또 다른 성과물로 박명희의 편역서(『박상의 생각, 한시로 읽다』, 도서출판 온샘, 2017)가 있다. 박명희는 편역서 제1장 ‘가족에 대한 추억과 사랑’ 부분에서 「의자도부」를 포함해 총 10제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음 2장에서 이러한 세 층위를 구분해 각각 드러난 감성을 구명하고, 이어 3장에서는 감정 표출의 미학 의미를 정리할 것이다. 본 연구가 원만히 끝난다면, 박상 가족시에 나타난 감정 양상의 전반적인 면모와 함께 조선 중기를 살았던 士林의 삶이 시 작품 표출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2. 가족시에 나타난 감정 양상

1) 조부와 형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

첫 번째 층위에 해당하는 가족시로, 「展祖考墓」, 「夢伯氏」 등이 있다.

박상은 44세 때 순천 부사를 끝으로 한동안 벼슬살이를 하지 않았는데, 1장 머리말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 무렵에 모친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모친상을 당한 뒤 3년 동안 시묘를 하였고, 시묘가 끝난 46세(1519, 중종14) 12월에 의빈부 경력, 선공감 정에 제수 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46세 12월은 기묘사화가 막 끝난 시점이고, 사람들이 당한禍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지 어느 누구보다 알았던 박상이었기 때문에 벼슬이 주어졌다 하여 곧바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 벼슬에 나아간 대신에 상소문을 마련하여 사화로 인해 쫓겨나간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였다. 그런데 자제와 친척들이 “상소문이 바쳐진다 하더라도 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화를 더 엄중하게 할 뿐입니다.”라 말하니, 박상이 개탄하며 “결국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라 말하고, 마침내 상소문을 불에 태웠다. 이 내용은 「연보」 46세 조에 나오는데, 기묘사화 때 사람들과 행동을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가슴 속에 맺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듬해 47세 가을에 여사가 되어 호남 지역의 災害를 시찰하였고, 이어 48세 봄에 상주 목사를 제수 받았다가 그해 여름에 충주 목사로 자리를 옮겼다. 박상은 52세(1525, 중종20) 겨울 사도시 부정으로 자리를 옮기기 이전까지 충주 목사로 줄곧 있었는데, 어느 날 잠시 시간을 내어 懷德 貞民驛 남쪽 근처에 있는 조부 박소의 산소를 찾아가 성묘를 하였다. 그리고 시 한 편을 지었는데,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자단 나무 향기는 생기 넘치게 올라가니	紫檀香氣上氤氳
슬픈 정령이 흰 구름에서 내리는 듯하네	悽悽精靈下白雲
옹중의 늙은 몸은 비바람으로 추해지고	翁仲老身風雨醜
큰 비석의 메마른 면엔 성명이 향기나네	豐碑枯面姓名芬
시서가 있어서 과거시험을 계승했으니	桂科似續詩書在
조부님이 박 넝쿨 재배하느라 애쓰셨네	匏蔓栽培祖考勤
이제 충주 목사 되어 낮에 비단옷 입으니	今作芮州眞畫錦
두어 병의 관청 술은 명군한테서 왔네	數瓶官酒自明君 ⁶⁾

위 시의 시제를 풀이하면 「조부의 산소에 성묘하다」이다. 박상의 조부 박소는 은산 군

6) 朴祥, 『訥齋集』 卷4, 「展祖考墓」 번역은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발간한 국역 『눌재집』을 참고했으며, 이하 번역도 동일함을 밝힌다.

사를 역임하였고, 이조 판서에 증직된 바 있다. 박상은 제목 소서에서 조부의 산소가 “회덕 정민역 남쪽 근처에 있다.(在懷德貞民驛南近)”라 했는데, 회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덕 지역의 옛 이름이다. 충주와 회덕은 같은 충청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 먼 거리는 아니다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박상은 충주 목사 시절 틈을 내어 조부의 산소를 잠시 다녀갔던 것이다.

우선 수련에서 성묘를 왔다는 분위기를 냈다. 1구에서 말한 ‘紫檀香’은 자단 나무를 잘게 깎아서 만든 향을 말한다. 이 자단향이 생기 넘치게 위로 올라가니 그 향을 맡은 정령이 흰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듯하다라 말하여 마치 땅에 있는 박상과 하늘에 있는 조부가 만난 듯이 표현하였다. 이어 함련에서는 산소 주변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1구에 말한 ‘翁仲’은 무덤 사이에 세워진 石人·石獸 등을 가리키며, 2구의 ‘豐碑’는 공적을 적고 덕업을 기리는 거대한 石碑를 말한다. 그런데 옹중의 높은 몸은 비바람으로 추해진 반면, 큰 비석의 메마른 면엔 성명이 향기롭다라 표현하여 옹중과 풍비가 서로 대조적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었다. 풍비에 적힌 성명은 역시 조부의 이름 박소로, ‘芬’ 자를 넣어 그 이름에서 향기가 나는 듯하게 표현하였다. 경련에서는 조부 박소를 칭송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출하였다. 1구에서 말한 ‘桂科’는 과거시험에 급제한 것을 뜻하는 한자어로, 쯔나라 武帝 때 郤詵이 賢良對策에서 장원을 하고는, 소감을 묻는 무제의 질문에 “계수나무 숲의 가지 하나요, 곤륜산의 옥돌 한 조각이다.(桂林之一枝 崑山之片玉)”⁷⁾라고 답변한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그리고 ‘似續’은 선조의 遺業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시경』 「斯干」에 “선조를 계승하여 담장이 백도나 되는 집을 지었네.(似續妣祖 築室百堵)”라는 말에서 인용하였다. ‘詩書’는 시와 글씨를 아울러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시경』과 『서경』 책을 말한다 고도 볼 수 있다. 둘 중 어느 것을 의미하든지 1구에서 박소가 남겨준 시서가 있어서 그로 인해 과거시험에 합격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어 2구에서 “조부님이 박 넝쿨 재배하느라 애쓰셨네”라 말했는데, 이 구절의 ‘박 넝쿨(匏蔓)’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는 없다. 열매 박이 달린 넝쿨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면,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만일 ‘朴’ 자를 대신해 ‘匏’ 자를 썼다면, 조부 박소가 후손들을 기르느라 애를 썼다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마지막 미련에서는 박상 자신이 충주 목사가 되어 비단옷을 입고 와 술을 올리게 된 것을 언급하였다. 시 말미에 “그때 동관이 술 두 병을 보내주어 제사에 쓰게 했다.(時同官 送酒二瓶備奠)”라 말한 소주가 있으니, 미련 2구에서 말한 ‘明君’은 곧, 술을 보내준 同官을 가리킨다.

이상과 같이 박상은 「조부의 산소에 성묘하다」 시를 통해 조부 박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는데, 첫 번째 층위의 두 번째 시에서는 형 박정을 그리워하는 정감을 드러내었다.

한번 이별 후 가까이 하지 못해	一別無由近
할미새 나는 들판에 풀만 무성하네	鶻原草獨深
시서를 치운지 며칠이 되었던가	詩書埋幾日
형의 문필은 지금까지 그대로라	翰墨到如今
먼 곳까지 와서 꿈에 나타나시니	遠地來和夢

7) 『晉書』 卷52, 「郤詵列傳」

추운 밤에 거듭 마음이 슬퍼지네	寒宵重愴心
강남은 또 만 리의 먼 길이라	江南還萬里
일어나 앉아 옷깃에 눈물 흠뻑 적시네	起坐淚盈襟 ⁸⁾

이 시의 시제를 풀이해보면 「큰형을 꿈꾸다」이다. 시제에 나온 큰형은 역시 박정을 가리킨다. 박상의 「연보」 25세 조를 보면, 박정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 기록 자료가 나오는데,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하춘공은 타고난 자질이 빼어나게 아름다웠고, 덕행과 기량이 순수하게 이루어졌으며, 문장과 학술을 뛰어나게 스스로 터득하여 어진 사우들이 그를 추종하여 말하기를 “몹시 뛰어나다.”라 하였다. 점필재가 호남 관찰사가 되어 예를 두터이 하여 대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조정에서 일할 그릇이다.”라 하였다. 공은 그로 인해 점필재와 교유하며 많은 지도를 받았다. 두 아우를 가르쳤는데, 모두 명망 있는 선비가 되었다. 당시에 일컫기를 “송나라에 부자 삼소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형제 삼박이 있다.”라 하였다. 18세에 생원이 되었으나 불행히도 일찍 세상을 떠났다. 저술은 병화에 잃어버렸고, 「서석산부」 1편이 전한다.⁹⁾

위 내용에서는 총 네 가지를 언급하였다. 첫째, 박정의 자질과 덕행, 기량, 문장과 학술 등을 말하였고, 둘째 점필재 김종직과의 인연을 말하였으며, 셋째 박상과 박우 두 아우를 가르친 것을 말하였고, 마지막으로 18세에 생원이 되었으나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말하였다. 이 내용 대로라면 박정이 32세의 나이에 세상을 뜨지 않았다면,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했을 것이라 추정한다. 이런 큰일을 할 수도 있었고, 그토록 부친을 대신해 의지하던 형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으니 박상이 받은 슬픔은 깊었을 것이며, 그리움 역시 컸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크면 간혹 꿈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박상이 형 박정 꿈을 꾸곤 것도 바로 그 그리움이 내재해 있었기 때문이다.

박상은 詩題 다음에 소서를 적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큰형이 무오년(1498, 연산군4) 가을에 세상을 떠나 나와 서로 생사가 갈리는 시간으로 들어갔다. 이해 겨울 호남에서 서울로 간 지 닷새째 되던 날 꿈에 형이 보였고, 그 뒤에 또 세 번이나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형제간의 지극한 情理는 저승일지라도 눈바람 치는 길을 가는 나그네를 염려해 주는 것과 같기에 그러한 것인가.¹⁰⁾

이 내용 대로라면 박상은 형 박정 꿈을 한두 번 꾸곤 것이 아니다. 박정이 세상을 뜬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에서 형 꿈을 꾸었고, 그 뒤에도 무려 세 번이나 꿈을 꾸었다. 그

8) 朴祥, 『訥齋集』 卷3, 「夢伯氏」

9) 朴祥, 『訥齋集』 附錄 卷4, 「年譜」 25세 조, 荷村公 天資秀美 德器純成 文章學術 超然自得 賢士友相推之 曰白眉之良 佔畢齋 按湖南 加禮以待 曰眞廊廟器也 公因與從遊 多受啓迪 教訓兩弟 俱爲名儒 時稱宋有父子三蘇 東國有兄弟三朴云 十八 生員 不幸早世 著述 失於兵燹 傳瑞石山賦一篇.

10) 朴祥, 『訥齋集』 卷3, 「夢伯氏」 小序, 戊午秋 捐館 幽明入變炎涼 當年冬 自湖南至京師之五日 入夢後又如是者三 豈兄弟至情 雖冥冥 猶念客路風雪故歟.

래서 박상은 생각하기를 저승에서 형이 아우를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반문한다. 이 소서는 박상이 형 박정이 왜 그리 꿈에 자주 나타나는지 그 까닭을 적은 것으로 다음 시 내용을 통해 정감을 느낄 수 있다.

수련에서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형과 이별한 뒤로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할미새 나는 들판에는 풀만 무성하다라 하였다. 2구에서 말한 ‘鵲原’은 鵲在原地의 준말로, 형제간의 우애를 뜻한다. 『시경』 「常棣」에 “저 할미새 들판에서 호들갑떨듯, 급한 때는 형제들이 서로 돕는 법이라오. 항상 좋은 벗이 있다고 해도, 그저 길게 탄식만을 늘어놓을 뿐이라오.(鵲在原 兄弟急難 每有良朋 況也永歎)”라는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다시 말해 수련에서는 형제간의 우애가 남달랐다는 것을 말하였다. 함련 두 구를 통해서는 형이 읽었던 책과 문필을 언급하였다. 책은 형이 세상을 뜬 뒤에 모두 치웠으나 문필은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했으니, 형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경련에서 마침내 형이 꿈에 나타난 사실을 말하며, 2구에서 구체적인 감성을 나타내었다. 그 감성의 한자어로 ‘哀心’이 아니라 ‘愴心’이라 했으니, 그 비통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애심’에 비해 ‘창심’은 그 슬픔의 정도가 비통할 정도로 심하기 때문이다. 이어 마지막 미련 1구에서 형이 마치 날씨가 따뜻한 강남에 있는 듯이 말한 뒤에 슬픈 감성을 결국 눈물로 쏟아내고 말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미 세상을 뜬 형에 대한 그리움이 깊다는 것을 마지막 미련을 통해 더 간절히 느낄 수가 있다.

2) 죽은 아내에 대한 슬픔과 애뜻함

두 번째 층위에 해당하는 가족시로, 「夾谷悼 三歌」, 「記夢」 등이 있다.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박상은 그의 나이 33세 11월에 첫 번째 부인 진양유씨를 잃는다. 박상의 「연보」에서 유씨가 “아름다운 덕과 착한 행실(美德淑行)”을 지녔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인이 세상을 뜬 것이다. 그것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떴다는 것을 다음 「의자도부」를 통해 알 수 있다.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계획은 실로 좋았으나 해내지는 못하고
갑자기 괴이한 꿈이 흉한 일 고했네
위급한 아내 구함을 어찌 멈추었을까
영영 세상 떠난 것을 깨달았네
때는 한 해 다 가지 않은 동짓달
달의 두꺼비가 그 얼음 돌렸었네
이십구 년은 정말 눈 깜짝할 새였고
아내는 옥고리를 버리듯 놓고 갔네
저승길 떠난 것 날로 멀어짐 서러우니
외쳐도 들리 리 없고 불러도 알지 못하네
하늘과 땅이 오래 간다 하지만
가슴 아프다, 다시 만날 때 언제인가
내 가슴 속 쓰라림은 괴롭거니와

計實勤而不究兮
忽怪夢之凶調
徵斷絃之曷休兮
悟永拋乎琴瑟
瞻歲躔之未周兮
蟾馭轉其冰轂
廿九年眞一瞥兮
委環佩其若遺
悼幽蹤之日遯兮
號無聞而招不知
雖圓厚之久長兮
痛更觀之何時
疚余中之酸楚兮

한없는 슬픈 마음 지니고 사네	銜袞袞之情悲
남기고 간 어린 아이 무릎 위에 안으니	抱遺雛於膝上兮
눈물이 철철 턱에 고이네	淚浪浪其交頤
컴컴한 안방에 먼지 쌓이고	洞房黶昧以塵凝兮
바람은 서서히 방장 흔드네	風徐徐以振帷幄
비단 살창 열어놓고 탄식하니	闢綺疏以喟息兮
목소리와 얼굴 아득하여 접할 길이 없네	邈聲容之不可接
정원 매화에 봄비 머물러 있어	逗春雨於園梅兮
방불한 정신을 보존하였네	存精神之彷彿
지금은 어둡고 빛 없이	時曖隳其曠曄兮
해는 서둘러 서쪽으로 지네	曜靈俄而西沒
가슴 속 끓어올라 불 지른 듯하니	情涓沸以若炊兮
참담한 반약의 아내 잃은 답답한 마음	慘潘懷之忡鬱
아, 선한 이에게 복 내리고 음란한 이에게 재앙 내림은	噫福善禍淫
그 이치 또한 감감하네	理又玄玄
(중략)	
하늘은 어찌 하여 나에게	天胡使我
갑자기 아내 잃어 고분 고통 갖게 하는가	忽鼓子休之盆
정녕 푸른 하늘 믿기 어려워	信蒼高之難諶兮
마음 슬프고 답답하며 억울하여 못 견디겠네	中閔贅而煩冤 ¹¹⁾
(후략)	

위의 「의자도부」에서는 진양유씨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로 인해 느낀 깊은 슬픔 등을 적었는데, 박상은 아내를 잃은 자신의 처지가 마치 潘岳과 같다고 하였다. 반약은 풀나라의 시인으로, 아내의 죽음 뒤에 그를 애도하는 시 「悼亡詩」 3수를 지은 바 있다. 그리고 “갑자기 아내 잃어 고분 고통 갖게 하는가(忽鼓子休之盆)”라 말하였다. 이 내용은 莊子와 관련된다. 장자가 아내가 죽어 惠子が 問喪하러 갔더니 장자가 다리를 뺀고 앉아서 동이를 두드리며 노래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본래는 삶이란 것도 형체란 것도 없었는데, 이제 본래 없는 상태로 돌아갔으니 슬퍼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대답했다 한다.¹²⁾ 그래서 ‘고분 고통’을 아내의 상을 당하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박상은 「의자도부」를 통해 아내의 죽음을 슬퍼했는데, 다음 인용하는 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가 있다. 시제는 「협곡도 삼가」로, 총 세 작품으로 이루어진 연작시이다. 세 작품은 일어난 일을 시간적인 질서를 지켜 적었는데, 진양유씨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그를 애도하는 마음이 상세히 담겨 있다. 우선 첫 번째 작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날 그대와 부부된 것 생각하니	憶昔與君爲夫婦
흰머리 되도록 백년해로 기약했는데	期以百齡同白首

11) 朴祥, 『訥齋集』 卷1, 「擬自悼賦」 일부분.

12) 莊周, 『莊子』 「至樂」

서생의 생계는 곤궁하기 그지없어
 빗장 떼어 밥 짓고 머리 잘라 쌀 팔았지
 어느 날 관직 얻어 조금 편안함 기뻐했고
 서울에서 빠듯하게 함께 생활하다가
 서로 이끌고 옛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괴이하게도 직성이 양구를 만났구려
 울곡의 봄바람은 불현듯 따뜻함 멎었고
 그윽한 동방을 굳게 닫은 지 오래 되어
 밝은 달 밤 사랑하는 사람 보이지 않으니
 짧은 인연이 진양의 유씨만을 해쳤소
 아 첫 번째 노래여, 그 노래 최고로 괴로운데
 끝없는 내 마음을 그대는 아는 것이요

書生計活太酸寒
 炊爨翦髻墮窮臼
 一朝釋褐喜稍康
 就食京華共升斗
 提携歸來舊枌社
 怪底直星丁陽九
 春風律谷忽罷暖
 洞房幽幽鎖閉久
 相思明月不見人
 短分偏傷晉陽柳
 嗚呼一歌兮歌最苦
 脈脈我懷君知否¹³⁾

총 14구로 이루어진 위 시는 총 네 부분으로 내용이 구분된다. 우선 1~4구에서 진양유씨와 처음 부부가 되었을 당시 백년해로를 기약했던 일과 가난한 삶을 헤쳐 나갔던 일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어 5~8구에서 박상이 관직을 얻어 기뻐하며 서울에서 빠듯한 살림살이를 하다가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적었다. 박상은 28세(1501, 연산군7) 때 정시 을과에 합격해 교서관 정자를 시작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그로부터 5년 뒤에 진양유씨가 생을 마감했는데, 5~8구에서 이러한 사실을 시적으로 표현하였다. 8구에서 “괴이하게도 직성이 양구를 만났구려”라고 말했는데, ‘직성’은 나이에 따라 그 사람의 운수를 맡았다고 간주된 별이름이고, ‘양구’는 양이 거둬지고 음은 없는 것으로, 만물이 交感하지 않아 困의 극한으로 천하가 어지러운 것을 뜻하며, 일반적으로 엄청난 災厄을 말할 때 쓰는 용어이다. 즉, 박상은 아내가 죽게 된 이유는 결국 운수가 사나웠기 때문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9~12구에서 진양유씨가 묻힌 골짜기와 부부가 함께 지냈던 방의 분위기를 언급한 뒤에 아내가 없는 현실을 말하였다. 9구에서 말한 ‘律谷’은 진양유씨가 묻힌 골짜기를 말한다. 울곡은 본래 중국의 골짜기 이름으로, 날씨가 추워 오곡이 자라지 않았는데 제나라의 사상가 鄒衍이 律管을 불어 따뜻한 기운이 감돌게 하여 기장이 자랐으므로 黍谷이라 불렀다고 한다.¹⁴⁾ 이어 13구에서 ‘최고로 괴롭다(最苦)’라는 말을 하여 「협곡도 삼가」를 지을 당시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밝혔다.

다음 「협곡도 삼가」 중 두 번째 작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쁜 딸 둘이 들쭉날쭉 태어났으니
 도화로 얼굴 세수하듯 착한 아이임을 알았네
 지난해 또 기쁘게 의젓한 아들을 얻었으니
 포대기 속 아이를 사람들은 기린아라 불렀지
 하늘은 이를 남겨두지 않아 눈앞에서 떠났으니
 어찌하여 이미 주었다가 도로 빼앗아 가는가

兩箇好女生參差
 用桃靨面知淑姬
 去年且喜得岐嶷
 襁褓人稱麒麟兒
 蒼蒼不遺目前去
 夫何既與還奪之

13) 朴祥, 『訥齋集』 卷2, 「夾谷悼 三歌」1.

14) 王充, 『論衡』 「寒溫」

황량한 무덤에 즐비하게 모자가 함께 있는데	荒陵纍纍母子同
무덤가 나무엔 소슬하게 가을바람이 불어오네	幸木瑟瑟西風吹
아 두 번째 노래여, 그 노래가 대나무를 쪼개듯 하니	嗚呼再歌兮歌裂竹
홀로 희미한 등불 마주한 채 새벽이 이미 지났네	獨向殘燈晨已移 ¹⁵⁾

이상 「협곡도 삼가」 두 번째 작품은 1~4구, 5~8구, 9~10구 등 총 세 부분으로 내용을 나눌 수 있다. 우선 1~4구에서는 두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을 낳은 사실을 말했는데, 딸은 마치 복숭아꽃으로 얼굴을 세수하듯 착한 아이라 했고, 아들은 남들 말을 빌려 기린아라 하였다. 이어 5~8구에서는 1남2녀 세 명의 아이들을 모두 잃은 내용을 적었다. “하늘은 이를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낳은 아이들을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세 명의 아이들이 연이어서 죽었는데, 게다가 아내 진양유씨까지 세상을 떠 “황량한 무덤에 즐비하게 모자가 함께 있다”라 표현한 것이다. 박상은 「의자도부」의 마지막 부분에서 “세 아이 저승에 가고, 무덤 온통 황폐해졌으니, 슬프다. 아내 또 뒤따라 죽고, 부를 수가 없으니, 슬프다. 나의 죄는 무엇이길래, 이 환난을 당하는가, 슬프다.(三兒登幽 塚半蕪兮噫 妻又繼逝 不可呼兮噫 我罪伊何 罹此虞兮噫)”¹⁶⁾라고 읊었는데, 곧 5~8구의 내용과 서로 비슷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9구에서 「협곡도」 노래가 마치 ‘대나무를 쪼개듯 하다(裂竹)’라 했는데, 이는 첫 번째 작품에서 말한 ‘최고로 괴롭다(最苦)’라는 것과 대비시켜 볼 수 있다. ‘대나무를 쪼개듯 하다’라는 말은 대나무를 쪼개듯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최고로 괴롭다’와 ‘대나무를 쪼개듯 하다’라는 말은 슬픔을 대변하는 말인데, 전자보다 후자가 더 구체적이며 강도가 더 세다고 말할 수 있다. 10구에서 “새벽이 이미 지났다”라 했으니, 죽은 아내에 대한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슬픔과 애절한 마음이 함께 느껴지는 대목이다.

다음 「협곡도 삼가」 중 세 번째 작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아, 그대여 이별을 어찌 그리 서둘렀는가	嗟君此別何忙忙
황천은 길이 막혀 찾을 수가 없네	泉重路阻不可尋
내 귓가에 응애 소리 남겨 주니	遺得呱呱傍我耳
은근하게 어루만지며 늘 근심한다네	慇懃拊摩長欽欽
배고프면 먹을 것 찾고 목마르면 마실 것 찾으니	飢當呼食渴覓飲
낮엔 한 그릇에서 먹고 저녁엔 한 이불 덮네	晝必同盂昏共衾
어미가 없어 외롭고 쓸쓸한데 아이가 누굴 믿겠는가	惻惻無母汝何恃
밤새도록 잠 못 들며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네	徹夜不寐沾余襟
아, 세 번째 노래여 그 노래가 격렬하니	嗚呼三歌兮歌激烈
두견새 우는 오경 산속은 밤이 깊어가네	五更杜宇山正深 ¹⁷⁾

이상 세 번째 작품 역시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1~4구, 5~8구, 9~10구 등 총 세 부분

15) 朴祥, 『訥齋集』 卷2, 「夾谷悼 三歌」2.

16) 朴祥, 『訥齋集』 卷1, 「擬自悼賦」 일부분.

17) 朴祥, 『訥齋集』 卷2, 「夾谷悼 三歌」3.

으로 내용을 나눌 수 있다. 1~4구 내용에 따르면, 진양유씨는 세상을 뜨기 전에 갓난아이를 남겨두었다. 3구에서 “내 귓가에 응애 소리 남겨 주니”라 했으니, 아이는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앞 1장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박상과 진양유씨 사이에는 민제와 민중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중 한 명이라 보면 된다. 다음 5~8구에서는 갓난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내용을 채웠다. 이제 갓난아이는 어미가 없기 때문에 박상이 온전히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어 낮과 밤 동안에 함께 지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아이의 입장이 되어 어미가 없기 때문이 외롭고 쓸쓸할 것이라 하였다. 아내가 갑자기 죽은 것도 슬픈데 어미 없이 어린 아이가 커야 한다는 생각에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그래서 밤새 잠도 이루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작품에서 그랬듯이 마지막 9구에서 「협곡도」 노래가 ‘격렬하다(激烈)’라 하였다. ‘격렬’은 “말이나 행동이 세차고 사납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 작품에서는 ‘최고로 괴롭다’라 하였고, 두 번째 작품에서는 ‘대나무를 쪼개듯 하다’라 했으며, 마지막 세 번째 작품에서는 ‘격렬하다’라 말한 것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0구 내용에 따르면, 박상은 오경이 될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오경은 한밤 세 시부터 다섯 시까지를 이르니, 거의 밤을 샌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협곡도 삼가」를 살폈다. 「협곡도 삼가」는 작품의 내용에 따르면, 진양유씨가 세상을 뜬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슬픔은 사그라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세차고 사나워지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진양유씨가 세상을 뜨고 시간은 흘러갔다. 그 사이 박상은 하동정씨와 다시 혼례를 올려 아들 민고를 두었다. 그리고 내외직을 두루 거치며 관직 생활을 이어나갔고, 모친상을 당해 3년의 시묘도 했으며, 국가적으로는 기묘사화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관직에서 물러나거나 유배를 가는 등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 기묘사화가 일어난 뒤 시간은 또 흘러 박상은 48세 여름에 충주 목사에 부임하여 맑은 바 소임을 다하면서 틈이 나면 기묘사화 때 화를 입은 충주 인근 사람들에게 물심양면 도움을 주었다.¹⁸⁾ 이어 52세(1525, 중종 20) 겨울에 충주 목사직에서 사도시 부정 자리로 옮겼다. 그런데 그해 52세 6월 12일에 사도시 부정에 부임을 받고 子春縣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그날 밤 꿈에 진양유씨가 나타난 것이다. 그때의 상황을 박상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을유년(1525, 중종20) 6월 12일에 나는 부임 명령을 받고 자춘현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꿈에 죽은 아내 柳淑人을 만났는데,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같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숙인이 “첩 아무개는 버리셔야 합니다. 당신 집안을 망칠 자는 반드시 이 사람일 것입니다.”라 하였다. 마침내 잠에서 깨어나서 그 한두 가지를 기록하고, 우선 절구를 지었다.¹⁹⁾

자춘현은 충청도 永春縣의 별칭이다. 꿈에 나타난 죽은 아내는 살아있을 때와 모습이 같았다. 박상은 꿈에서 유씨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유씨는 특히, 첩

18) 박상의 충주 목사 시절 행적은 박명희의 논문(「訥齋 朴祥의 忠州牧使 시절 기묘사림과의 시적 교류와 그 의의」, 『국어국문학』 189호, 국어국문학회, 2019, 241~268쪽)을 참조하였다.

19) 朴祥, 『訥齋續集』 卷2, 「記夢」 小序.

이야기를 하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꿈에서 깬 박상은 꿈 내용을 기록하고, 또한 칠언절구 한 수를 지었는데, 시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꿈에서 함께 살던 사람과 우연히 만났는데	魂交邂逅與齊人
손꼽아보니 유명 달리한 지 이십 년이네	屈指幽明二十春
집안 망칠 여우가 굴을 뚫다 말을 하며	見說敗家狐穴地
제때 불을 피워 가시덤불로 쫓아내라 하네	及時燠火逐荒榛 ²⁰⁾

기구에서 말한 ‘魂交’는 정신이 교차하는 모습으로 꿈을 꾸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장자』 「齊物論」 “잠들어서도 꿈을 꾸어 마음이 설 사이가 없고, 깨어나서는 신체가 외계의 욕망을 받아들여 사물과 접촉해서 분쟁을 일으켜 날마다 마음속에서 싸운다.”²¹⁾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그리고 ‘與齊人’은 함께 산 사람이라는 뜻으로, 죽은 진양유씨를 가리킨다. 이어 승구에서 유씨와 헤어진 지 어언 2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말하였다. 그리고 전구와 결구에서 꿈속에서 유씨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겼는데, 조금은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제 진양유씨가 생을 달리한 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처음에 막 죽었을 때 느꼈던 슬픔은 느끼지 않을 수 있으나 그래도 무의식 속에 그리워하는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꿈에서까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3) 아우와 아들에 대한 사랑과 바람

세 번째 층위에 해당하는 가족시로, 「詠菊 次弟韻」, 「中原北津 別舍弟歸關東幕」, 「墨梅竹」, 「黃山開泰寺水鐵臼 次弟韻」, 「奉酬元冲和舍弟韻」, 「次舍弟韻」, 「秋夕翫月 舍弟茅亭置酒」, 「聞舍弟接梅 索成二絕」, 「金灘送舍弟入京」, 「聞舍弟自掌令超拜執義 以詩爲賀」, 「沃川守李弘幹 送柿子百箇 仍書問官況 且示舍弟昌邦詩律 次韻謝之」, 「丁進士與子敏中入俗離山讀書」, 「癸未四月八日 敏齋生日有感」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계미사월팔일 민제 생일유감」, 「정진사여자민중 입속리산독서」 등은 장남 민제, 차남 민중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작품은 아우 박우와 관련된 것이다.

박상은 아우 박우를 늘 살뜰히 보살폈다. 15세 때 부친을 여의고, 25세 때 형 박정까지 잃어 형제라고는 이제 박우밖에 없었기에 늘 책임감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그리고 박우는 형 박상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고, 박상의 나이 31세(1504, 연산군10) 4월에 진사시에 수석 합격을 하였다. 그리고 5월 18일 박상의 생일에 이를 축하하기 위해 모친을 비롯해 친지와 벗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벌였다. 부친과 형 박정이 없는 가운데 이루어진 집안의 잔치인지라 분위기가 무르익자 박상과 박우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어서 박상이 박우에게 別給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당시 분위기를 적은 내용이 「別給六峯文」에 그대로 담겨 있는데, 그중 박상이 박우에게 말한 내용 중 일부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 놀재가 또 감상에 잠겨서 말하기를, “지난번 내가 진사에 합격하였을 때 돌아가신 형님께서 주신 것이 있었다. 이제 내가 진사가 되었는데 형님이 이미 돌아가셨으니, 책

20) 朴祥, 『訥齋續集』卷2, 「記夢」

21) 莊周, 『莊子』 「齊物論」

임이 나에게 있지 않겠느냐.” 하고는 들어가 어머님께 고하니 어머님께서 좋다고 하고, 나와서 친족들에게 고하니 친족들도 좋다고 하고, 손님들에게 두루 고하니 손님들도 좋다고 하였다. 이에 마침내 노비, 田土, 書釘과 서책을 그에게 주었다. 이어 말하기를, “아, 내 아우는 힘쓸지어다. 이 노비를 부리고, 이 전토를 경작해 밥을 먹고, 서정과 서책으로 斯文에 크게 힘을 다하라. 이것이 내가 바라는 바이다. 아, 내 아우여. 진사 장원으로 만족스럽다 여기느냐.” 하니, 아우가 일어나서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서 대답하기를, “비록 영민하지는 못하나 형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감히 가르침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놀재가 기뻐서 글을 썼다.²²⁾

별급은 재산 상속의 한 형태로, 특별한 사유로 재산의 일부를 미리 증여하는 행위를 뜻한다. 즉, 요즘의 재산 분할이라 말할 수 있다. 위 내용에 따르면, 박상은 예전에 진사시에 합격했을 당시 박정에게서 집안의 재산을 일부 받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박상이 박우에게 그 재산을 나눠준 것이다. 재산을 나눠주면서 박상은 박우에게 당부의 말도 하였다. 그러자 박우가 형 박상에게 절을 올리면서 “가르침을 잘 받들겠다”라고 응답하며 내용은 끝난다. 이 「별급육봉문」의 내용은 박상이 평소 효우를 몸소 실천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아우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다.²³⁾

박상이 아우 박우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시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박상이 박우와 관련해 지은 시 중에서 감성이 드러난 작품을 들어보겠다. 우선 충주 목사 시절에 지은 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가에서 한 잔 술 들며	江上一杯酒
너를 관동으로 보내노라	送君關以東
말은 모래벌판 풀밭에 세우고	馬亭沙磧草
사람은 바람 부는 학정에 앉네	人坐鶴汀風
맑은 물은 흉중으로 흐르고	白水流襟內
푸른 산은 안중으로 들어오네	靑山落眼中
표연히 형제가 헤어지니	飄然分棣萼
어느 때에나 봄을 함께 할까	春意幾時同 ²⁴⁾

시제를 풀어보면 ‘충주 북쪽 나루에서 관동 막사로 돌아가는 동생을 전송하며’이다. 물론 박우는 벼슬살이를 하러 관동에 가는 것이다. 아마도 박우가 관동으로 떠나기 전에 이별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박상을 만나러 충주로 갔을 것이다. 박상과 박우, 두 사람은 강가에서 술잔을 마주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다. 그 대화의 내용을 시 속에 담지 않았으나 박상은 형으로서 박우에게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이별을 해야만 했다. 위 시 미려한 두 구에서 기억 없는 이별의 아쉬운 마음을 적어 당시의 심정을 나타내었다. 박상이 아우 박우를 아끼

22) 朴祥, 『訥齋別集』 卷1, 「別給六峯文」

23) 박상의 효우 실천에 대한 내용은 김동수의 저서(『호남 의리사상의 실천가 놀재 박상』, 동인출판문화원, 2016, 90~101쪽)를 참조할 수 있다.

24) 朴祥, 『訥齋集』 卷3, 「中原北津 別舍弟歸關東幕」

고 사랑하는 마음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시이다.

다음 시 역시 박상이 충주 목사 시절에 지었다. 박우가 장령 벼슬에서 품계를 뛰어넘어 집의에 제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축하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작품은 다음과 같다.

임금의 감식 사심 없고 조정 공론 공정해	宸鑑無私朝論公
오랜 침체에 중에 있던 너를 집의로 초배했네	超君貳憲久沈中
해치관 쓰고 얼마나 북쪽 대궐 생각했던가	豸冠幾把心懸北
서벽에서 이제 동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네	西壁今敎座轉東
세 번째 임명이니 처신을 공손하게 하고	三命處身須罄折
장관의 주장이라 해서 부화뇌동 말라	長官持議莫雷同
호서에서 이 형의 심정 어찌 끝이 있으랴	雁行湖海情何極
분발해서 성상의 몸 지킨다는 말 들리게 하라	能振吾聞保聖躬 ²⁵⁾

집의는 조선 시대 사헌부의 종3품 관직이다. 집의를 포함한 대관은 사헌부의 기간요원이기 때문에 그 책무는 막중하였으므로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직언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이 임명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문과에 급제한 자로서 直拜되거나 승문원·성균관·홍문관 등을 거친 자들이 임명되었다.²⁶⁾ 이런 중요한 직책을 박우가 맡게 되었으니 형 박상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축하의 의미로 시를 지어 주었다.

수련에서는 아우 박우가 집의에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은 임금의 감식이 사심이 없고, 조정의 공론이 공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였다. 2구 내용을 통해 보면, 박우는 오랜 기간 동안 승진의 기회를 놓쳤던 것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그 침체기를 벗어나 사헌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으니, 형 박상은 기쁜 마음이 컸다. 함련에서는 박우가 장령 벼슬에 있으면서 임금이 있는 북쪽 대궐을 생각했던 것을 언급한 뒤에 서벽에서 동벽으로 자리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전통 시대 관청에 관리가 출근하면 장관이 정면에 앉고, 그다음은 위계 순서에 따라 동·서로 갈라 앉는다. 동쪽에 앉은 사람을 동벽, 서쪽에 앉은 사람을 서벽이라 하는데, 사헌부의 집의는 동벽에 장령은 서벽에 앉았다. 그리고 다음 경련에서 관료에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행동에 대해 언급한다. 우선 1구에서 말한 ‘三命’이란 세 차례 벼슬이 승진하는 것으로, 벼슬이 높아질수록 공손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뜻도 지니고 있다. 이는 『春秋左氏傳』昭公 7년 조에 “첫 번째 벼슬을 받자 머리를 숙였고, 두 번째 벼슬을 받자 몸을 굽혔고, 세 번째 벼슬을 받자 허리를 굽히고는 길 가운데를 피해 담장을 따라서 달아났으니, 아무도 나를 모욕하는 이 없었지.”²⁷⁾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다시 말해 “세 번 임명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꽤 높은 직책을 맡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상은 여기에서 “처신을 공손히 하라”고 말한다. 벼슬이 높은 데에 오르면 오를수록 처신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더하여 장관, 즉 직책이 더 높은 사람이 주장한 것이라 하여 거기에 무조건 동조하지 말라는 말도 한다. 아부를 해서 더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든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했을 법도 한

25) 朴祥, 『訥齋續集』卷2, 「聞舍弟自掌令超拜執義 以詩爲賀」

2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5069>) 검색일 : 2025년 6월 20일

27) 『春秋左氏傳』昭公7年, 一命而僂 再命而偃 三命而俯 循牆而走 亦莫余敢侮.

데, 박상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말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소신을 지킬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박상의 평소 성품이 드러난다. 박상은 불의와 부정에 대해 과감히 懲治·항거·비판을 했는데,²⁸⁾ 아우 박우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미련 2구에서 또 다시 한번 “분발해서 성상의 몸 지킨다는 말 들리게 하라”는 당부의 말을 한다. 임금을 모시는 입장이 되었으니 그 업무를 성실히 잘 처리할 것을 말한 것이다.

이 시는 시제에 ‘축하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작정 축하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형이 아우에게 여러 가지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박상은 박우와 같은 관료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처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시는 따라서 감성이 밖으로 드러나진 않았으나 행간을 따져 읽어보면 그 속에 박상이 아우 박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지를 느낄 수가 있다.

다음 시 역시 박상의 박우에 대한 사랑을 감지할 수 있다. 시제를 풀이해보면 ‘옥천 군수 이홍간이 감 백 개를 보내면서 아울러 편지로 벼슬살이 근황을 묻고, 또 나의 아우 창방의 율시를 보여주어 그 시에 차운하여 감사를 표하다’이다. 작품은 다음과 같다.

산성에 가을 감이 풍년이 들었으니	秋柿山城上熟年
붉은 규룡의 짙은 알 연하여 딱딱하지 않네	楨虯濃卵輒無堅
어머니 갈증 풀라고 옥쟁반에 담아 바쳤고	已將玉盃供慈渴
대바구니에 담아 보내 주정꾼을 달랬네	仍送筠籠慰酒顛
큰소리치며 처자식과 함께 먹으라고	誇與妻孥同日嚼
편지를 동시에 보내와 말하는구나	爲言書札一時傳
게다가 남을 놀래킬 아우의 시도 보여주니	況看舍弟驚人句
형제의 깊은 정회로 기뻐서 잠 못 이루네	常棣深懷喜不眠 ²⁹⁾

시제에 근거해 이 시를 짓게 된 상황을 다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어느 날 옥천 군수 李弘幹이 감 백 개를 보내면서 아울러 편지도 보내왔다. 이홍간은 趙光祖·金淨 등과 교류했고 기묘사화 때 南袞의 과오를 지적하는 등 강직한 언사로 명망이 있었다. 이러한 이홍간이 보내준 편지는 아쉽게도 현재 남아있지 않아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시제와 시 내용을 통해서 편지에는 벼슬살이의 근황에 대한 물음과 보내준 감을 처자식과 함께 먹으라는 것 등이 적혔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한 것이 바로 박우의 율시에 대한 내용이다. 이 율시는 원래 이홍간에게 보낸 것인지, 아니면 이홍간을 통해서 박상에게 보낸 것인지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박상은 아우의 시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했다.

우선 수련에서는 이홍간이 보낸 감을 형상화하였다. ‘붉은 규룡의 짙은 알’은 홍시를 뜻한다. 당나라 때 韓愈가 「청룡사를 유람하며 최대 보궐에게 주다(遊靑龍寺贈崔大補闕)」 작품에서 “붉게 물든 감나무엔 홍시가 주렁주렁, 금오가 내려와서 규룡의 알 쪼아 먹네. (然雲燒樹火實駢 金烏下啄楨虯卵)”³⁰⁾라 했는데, ‘楨虯卵’은 곧 홍시를 가리킨다. 박상은

28) 박상이 불의와 부정에 대해 징치·항거·비판을 한 내용은 김동수의 전계서, 101~168쪽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29) 朴祥, 『訥齋續集』 卷2, 「沃川守李弘幹 送柿子百箇 仍書問官況 且示舍弟昌邦詩律 次韻謝之」

30) 韓愈, 『韓昌黎集』 卷4, 「遊靑龍寺贈崔大補闕」 일부분.

이흥간이 보내준 감을 모친에게도 드리고, 주정꾼에게도 주었는데, 함련에서 그러한 내용을 담았다. 이어 경련에서 편지에 적힌 내용을 끌어다가 말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미련에서 박우가 지은 율시에 대해 언급하였다. 미련 1구에 ‘놀래키다(驚)’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박상은 갑자기 대한 박우의 시로 인해 마음이 놀랐음에 분명하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불현 듯이 이흥간을 통해 아우의 시를 접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아우의 시를 보고, 아우를 그리워했을 것인데, 이는 미련의 2구 “형제의 깊은 정회로 기빠서 잠 못 이루네”라는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2구 원문에 나오는 ‘常棣’는 『시경』 「常棣」 시에서 유래하여 보통 형제의 우애를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이 시는 수련부터 경련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이흥간이 보내준 감 이야기가 적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미련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박상에게는 결국 아우의 시가 중요하다. 그 이유는 박우의 시를 통해 안부를 알고, 형제 사이의 정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상은 두 아들 민제, 민중과 관련해 각각 한 편씩 총 두 편의 시를 남겼다. 두 작품을 모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석가의 생일에 너는 동쪽에서 태어났으니	西仙生日汝生東
네 어머니의 수고가 옆구리로 낳은 것과 같았지	爾母劬勞誕脅同
다 큰 지금 네 어머니만 보이지 않으니	長大祇今偏不見
늘그막 노인의 눈물 슬픈 바람에 흩뿌리네	暮年衰淚灑悲風 ³¹⁾

②

내일 아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가니	明日童烏同入山
속리산은 백운 사이로 높이 솟았으리	俗離高截白雲間
학문하려 한다면 뱃사공을 보아야만 하니	須將爲學看舟子
나아갈 때는 높은 데 오르듯 하고 물러날 때는 둥근 것 굴리듯 하라	進似緣高退轉圓 ³²⁾

①의 시제를 풀이하면 ‘계미년 4월 8일에 민제의 생일에 감회가 있어 짓다’이다. 계미년은 박상의 나이 50세(1523, 중종18) 때이다. 민제는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박상과 진양유씨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다. 시제에 따르면, 민제는 4월 8일이 생일이다. 4월 8일은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이기도 해서 기구에서 “석가의 생일에 너는 동쪽에서 태어났다”라 하였다. 『魏書』 「釋老志」 기록에 의거하면, “석가는 4월 8일에 어머니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탄생하였다.”라 한다. 이 때문에 박상은 석가모니와 생일이 같은 민제를 어머니가 마치 옆구리로 낳은 것과 같이 고생해 낳았다고 승구에서 말하였다. 그런데 어머니 진양유씨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으니, 보이지 않아 눈물이 슬프게 흘러내렸다고 전구와 결구에서 말하였다. 이 시는 앞에서 이미 본 진양유씨 죽음과 관련한 「협곡도 삼

31) 朴祥, 『訥齋續集』 卷1, 「癸未四月八日 敏齋生日有感」
 32) 朴祥, 『訥齋續集』 卷1, 「丁進士與子敏中 入俗離山讀書」

가」와 연결 지어서 볼 수도 있다.

②의 시제를 풀이하면 ‘정 진사가 아들 박민중과 함께 속리산에 들어가 글을 읽다’이다. ‘정 진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정 진사가 둘째 아들 민중과 함께 속리산에 들어가 글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다. 박상은 시의 전구와 결구를 통해 학문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 조언을 할 때 뱃사공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뱃사공이 배를 노 저어 갈 때 하는 방법대로 학문을 하면 틀리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앞으로 전진 할 때는 높은 데에 오르듯이 천천히 가고, 뒤로 물러날 때는 등근 것 굴리듯이 빠르게 하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는 곧, 민중이 학문을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한 것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감성 표출의 미학적 의미

앞 2장에서 박상의 가족시를 총 세 층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정리하던 중에 첫 번째 층위 조부와 형 박정과 관련한 가족시로 「전조고묘」와 「몽백씨」 등이, 두 번째 층위 죽은 아내 진양유씨와 관련한 가족시로 「협곡도 삼가」와 「기몽」 등이, 세 번째 층위 아우 박우와 아들 민제·민중과 관련한 가족시로 「영국 차제운」, 「중원복진 별사제귀관동막」, 「목매죽」, 「황산개태사수철구 차제운」, 「봉수원충화사제운」, 「차사제운」, 「추석완월 사제모정치주」, 「문사제접매 색성이절」, 「금탄송사제입경」, 「문사제자장령초배집의 이시위하」, 「옥천수리홍간 송柿자백개 잉서문관황 차시사제창방시를 차운사지」, 「정진사여자민중 입속리산독서」, 「계미사월팔일 민제생일유감」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세 층위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각각 드러낸 감성 양상이 차이가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조부와 관련한 시를 통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적었고, 형과 관련한 작품을 통해서는 그리운 마음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죽은 진양유씨와 관련한 작품을 통해서는 슬픈 마음과 애절한 정을 나타냈고, 마지막 아우와 아들들과 관련한 작품을 통해서는 사랑하는 마음과 앞으로의 기대와 바람 등을 드러내었다.

그런데 이들 층위의 작품은 감성 양상도 차이도 있으면서 각 작품마다 감성 표출의 강도도 다르다는 알 수 있다. 첫 번째 층위에서 논의한 작품 「전조고묘」는 의례적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반면, 「몽백씨」는 형 박정이 죽은 뒤에 형 꿈을 꾸고 지은 시로, 슬픔을 억지로 참으면서 그리운 마음을 표출하였다. 그래서 「전조고묘」와 「몽백씨」의 감성의 표출 강도를 따졌을 때 당연히 후자가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층위에서 논의한 작품 「협곡도 삼가」와 「기몽」의 감성 표출 강도를 대비시켰을 때 당연히 전자가 더 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층위에서 논의한 아우와 아들과 관련한 작품의 감성 표출 강도를 대비시켜보면, 대체로 모든 시가 비슷한 수준의 강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상은 15세 때 부친을 여의고, 25세 때는 형 박정이 세상을 떠났으며, 이어 1남2녀를 잃은 뒤 33세 때 첫 번째 부인 진양유씨가 세상을 떠났다. 이와 같이 33세 때까지 집안에 우환이 연달아 있으면서 가슴 속에 ‘슬픔’이라는 감성을 늘 간직하고 살았는데, 특히 형과 진양유씨에게 느낀 감성 정도는 다른 사람에 대비시켰을

때 남달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슬픔의 감성이 지극히 잘 드러난 작품이 바로 「몽백씨」와 「협곡도 삼가」인 셈이다. 따라서 「몽백씨」와 「협곡도 삼가」 작품은 박상의 감성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하는 기준 잣대가 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몽백씨」와 「협곡도 삼가」 작품을 통해 박상은 자신의 감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었다. 특히, 이 두 작품 중에서 「협곡도 삼가」는 첫 번째 노래, 두 번째 노래, 세 번째 노래를 각각 ‘최고로 괴롭다(最苦)’, ‘대나무를 쪼개듯 하다(裂竹)’, ‘격렬하다(激烈)’라 하여 슬픔의 강도가 최고라는 것을 말하였다. 『논어』 「八佾」 20장에 “공자가 말하기를 ‘『시경』 「관저」는 즐거우면서도 지나치지 않고, 슬프면서도 화를 해치지 않는다.”³³⁾라 말한 이래로 전통 시대 유학자들은 속으로 아무리 슬프더라도 시로 나타낼 때 슬픔을 어느 정도 여과 또는 희석시켜 나타내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박상이 지은 「협곡도 삼가」는 슬퍼하면서 화까지 해쳤다는 느낌을 안겨준다. 즉, 너무 슬픈 나머지 화까지 해치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한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랑하는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떴으니, 슬퍼하는 당연한 일일 터이다. 그리고 보면 박상은 시를 통해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본성을 잘 실천했다고도 볼 수 있다.

전통 시대의 사람 중에 박상의 시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시를 비평한 사례가 있다. 그 중에서 미학적인 관점에서 비평한 경우를 몇몇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놀재 박상, 호음 정사룡, 소재 노수신, 지천 황정욱, 간이 최립 같은 이들은 險瓌하고 奇健함을 장기로 삼는다.³⁴⁾

② 예컨대 점필재의 蒼古함과 놀재의 奇崛함과 용재의 노련하고 (중략) 唐詩를 공부하였으나 문세가 약하고 깊이가 얕아서 의미가 없는 자에 비하면 본래 진실로 나온 것이니, 어찌 당시가 아니라 하여 이것을 폐할 수 있겠는가.³⁵⁾

③ 공의 시는 웅장 강직하고 기이하고 예스럽다.³⁶⁾

④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詩學은 대대로 사람이 없지는 않았지만, 읍취헌 박은 天成과 놀재 박상의 沈鬱함은 모두 盛世의 國風, 大雅, 小雅의 遺風을 지니고 있으니, 후대에 한림원에서 이름을 떨친 사람들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 하고, 두 사람의 문집을 간행하여 올리도록 명하였다.³⁷⁾

①은 신희, ②는 이의현, ③은 이금익, ④는 정조가 각각 비평한 글이다. 이들 네 사람이 비평한 글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박상의 시를 미학적으로 어떻게 보고 규정했는가

33) 『論語』 「八佾」, 子曰 關雎 樂而不淫 哀而不傷.

34) 申欽, 『象村稿』 卷52, 晴窓軟談 下, 如訥齋朴祥 湖陰鄭士龍·蘇齋盧守愼·芝川黃廷彧·簡易崔崑以險瑰奇健 爲之能.

35) 李宜顯, 『陶谷集』 卷26, 「題八家律選卷首」, 如佔畢之蒼古 訥齋之奇崛 容齋之老實 (中略) 比之業唐而綿淺無意味者 固自有勝 何可以非唐而廢之哉.

36) 李肯翊, 『練藜室記述』 卷8, 詩語雄剛奇古.

37) 正祖, 『弘齋全書』 卷164, 「日得錄」4, 我東詩學 世不乏人 而挹翠軒朴闇之天成 訥齋朴祥之沈鬱 皆盛世風雅之遺 非後來擅名詞垣者之比也 兩集遂命刊印以進.

이다. 신희는 박상의 시가 정사룡, 노수신, 황정욱, 최립 등의 시와 함께 “험괴하고 기건함을 장기로 삼는다”라 하였다. ‘험괴’는 “험벽하고 화려하다”라는 뜻이고, ‘기건’은 “기이하고 굳세다”라는 의미이다. 이의현은 박상의 시가 기골하다 말하며, “唐詩를 공부하였으나 문세가 약하고 깊이가 얕아서 의미가 없는 자에 비하면 본래 진실로 나은 것이다.”라 말한 뒤에 “어찌 당시가 아니라 하여 이것을 폐할 수 있겠는가.”라 하였다. ‘기골’은 “기이하고 산이 우뚝 솟은 듯이 크다”는 뜻이다. 이의현의 말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를 언급했으며, 박상이 마치 당시와 무관한 듯한 말을 하였다. 그런데 이 이의현의 당시 운운은 『놀이집』 서문을 쓴 박우의 언급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박우는 박상의 아우로서 어느 누구보다 박상의 시를 잘 알았던 사람으로, “風雅·『離騷』·李白·杜甫의 시에 대해 깊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놀이의 시를 능히 이해하기 어렵다.”³⁸⁾ 두보와 이백은 모두 盛唐 때의 문인인데, 박우는 이들 두 문인의 시를 깊이 아는 사람만이 박상의 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 내용을 따르면, 박상의 시는 당시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다. ③ 글을 통해 이공익은 박상의 시가 웅강기고하다라 하였다. ‘웅강’은 “웅장하고 강하다”라는 뜻이고, ‘기고’는 “기이하고 예스럽다”라는 의미이다. 이 이공익의 비평은 앞의 신희, 이의현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한편, 정조는 ④ 글을 통해 박상의 시가 침울하다라 하였다. ‘침울’은 “걱정·근심 따위로 밝지 못하고 우울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이상과 같이 박상의 시를 후대인들은 다양한 미학적 용어으로써 규정했는데, 다시 나열해 보면 ‘험괴’, ‘기건’, ‘기골’, ‘웅강’, ‘기고’, ‘침울’ 등이다. 이렇듯 여러 미학적인 시 비평 용어의 의미는 같은 듯하나 다른데, 한 가지로 통일되지 못한 것은 박상의 시를 각자 읽었는데, 본인에게 인상 깊게 다가온 시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 1장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박상의 시는 총 620제 1,200여 수에 이른다. 이들 시를 네 사람 모두 읽었을 것인데, 각자 다가온 느낌이 달랐을 것이다.³⁹⁾

그렇다면 박상의 가족시 중에서 감성 강도가 강하다 말할 수 있는 「몽백씨」와 「협곡도 삼가」 작품을 혹시 미학적 시 비평 용어로 규정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사람의 미학적 용어 ‘험괴’, ‘기건’, ‘기골’, ‘웅강’, ‘기고’, ‘침울’ 등에서 굳이 찾아본다면, ‘침울’이 근접하다 말할 수 있다. 「몽백씨」와 「협곡도 삼가」 작품은 슬픔이라는 감성이 겉으로 완전히 드러나면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숙연함과 침울함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박상은 士禍期를 관통해 살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당시 어느 누구보다도 실천정신이 뚜렷했던 사람이었다. 그 실천정신이 공식적으로 발휘된 상소문이 곧, 「請復故妃愼氏疏」인데, 이 글을 임금께 올림과 동시 조정 대신들은 격론을 벌여 결국 1519년 (중종14) 기묘사화의 遠因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⁴⁰⁾ 당시 「청복고비신씨소」를 올린다는

38) 朴祥, 『訥齋集』 「訥齋先生集序」(朴祐), 非深於風雅騷李杜者 則難能會訥齋之詩矣.

39) 이는 현대 연구자들 사이에 박상 시의 시풍을 규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박상 시의 시풍을 처음 언급한 사람은 박준규이다. 박준규는 전개논문 180쪽에서 박순의 조카 朴淳이 “盛唐의李白을 숭상하며 學唐의 風潮를 일으킨 것은 놀이를 비롯하여 김정 등의 감화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뒤에 민병수는 그의 저서(『한국한시사』, 태학사, 1996, 239~257쪽) 6장 5절 ‘唐詩 성향의 대두’ 부분에서 박상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종묵은 그의 저서(『해동강서시파연구』, 태학사, 1995)에서 박상을 송시풍의 한 줄기인 해동강서시파의 일원으로 포함하여 논의하였다. 박상 시의 시풍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논의를 더 진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40) 박상의 실천정신과 「청복고비신씨소」에 대한 연구는 윤사순의 논문(「조선조 의리사상 형성과 놀재」,

것은 사실 목숨을 내놓은 일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박상이 金淨과 함께 이 상소문을 올렸던 것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박상은 평소에도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고 스스로 드러내었다. 가령, 기묘사화를 일으킨 주동자인 沈眞의 별장 逍遙堂에 시를 썼으며, 그 시제는 「題逍遙堂排律四十韻」이다. 이 시에서 박상은 심정을 비판하는 시를 썼는데, 결국 그것을 안 심정이 크게 화를 내며 뜯어서 불태워 버렸다고 한다.⁴¹⁾ 사화기와 같은 민감한 시기에 출세의 길을 걸으려고 했다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지 따지지 않고 잘 보이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상은 그런 것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다 보니, 처음에는 내직에서 벼슬살이를 시작했으나 점차 중앙 정치와 멀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다.

가족시에 나타난 감성도 이런 평소 성품과 일맥상통한 측면이 있다. 자신의 형과 아내가 죽어 슬픈데, 그런 감정을 감추고 아무렇지 않은 듯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밖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사실 같은 가족시이지만 「몽백씨」와 「협곡도 삼가」 작품은 「전조고묘」 작품과 비교했을 때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그 이유는 「몽백씨」와 「협곡도 삼가」 작품이 감정을 스스로 드러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감성의 스스로 드러내는 流露는 곧, 작품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데, 「몽백씨」와 「협곡도 삼가」 시가 거기에 해당한다 말할 수 있다. 박상 가족시에 나타난 감성 표출의 미학적 의미는 다시 말해 감정을 숨기지 않는 솔직함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솔직함이 평소 성격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4. 맺음말

본 논문은 박상의 가족시 총 16제 20수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가 원만히 끝난다면, 박상 가족시에 나타난 감성 양상의 전반적인 면모와 함께 조선 중기를 살았던 사람의 삶이 시 작품 표출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가족시는 박상을 기준으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시 세 층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층위에 해당하는 가족시는 박상보다 위에 자리하는 조부 박소와 형 박정과 관련한 작품으로, 「전조고묘」, 「몽백씨」 등이 해당하였다. 이들 작품을 통해 박상은 감사와 그리움의 감성을 드러내었다. 두 번째 층위에 해당하는 가족시는 박상과 수평적 위치에 놓인 진양유씨와 관련한 작품으로, 「협곡도 삼가」, 「기몽」 등이 해당하였다. 이들 작품을 통해 박상은 슬픔과 애절한 감성을 드러내었다. 세 번째 층위에 해당하는 가족시는 박상보다 아래에 자리하는 아우 박우와 두 아들 민제와 민중과 관련한 작품으로, 「영국 차제운」, 「중원복진 별사제귀관동막」, 「목매죽」, 「황산개태사수철구 차제운」, 「봉수원충화사제운」, 「차사제운」, 「추석완월 사제모정치주」, 「문사제접매 색성이절」, 「금탄송사제입경」, 「문사제자장령 초배집의 이시위하」, 「옥천수리흥간 송柿자백개 잉서문관향 차시사제창방시를 차운사지」, 「정진사여자민중 입속리산독서」, 「계미사월팔일 민제생일유감」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상은 이들 작품을 통해 사랑과 미래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내었다.

『눌재 박상의 문학과 의리 정신』, 광주직할시, 1993, 15~27쪽)을 참조하였다.

41) 張維, 『谿谷集』 卷3, 「書逍遙堂序後」

이들 가족시를 살펴본 결과 감성의 강도가 최고로 센 작품으로는 「몽백씨」와 「협곡도 삼가」라고 결론을 지은 다음에 이들 시가 미학적 비평 용어 중에 ‘침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두 작품은 특히, 감성을 스스럼없이 나타내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데 이는 결국 박상이 평소 감정을 숨기지 않고 행동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참고문헌〉

- 『谿谷集』(장유)
- 『論語』
- 『訥齋集』(박상)
- 『陶谷集』(이의현)
- 『論衡』
- 『象村稿』(신흠)
- 『練藜室記述』(이공익)
- 『莊子』
- 『晉書』
- 『春秋左氏傳』
- 『韓昌黎集』(한유)
- 『弘齋全書』(정조)

김동수, 『호남 의리사상의 실천가 놀재 박상』, 동인출판문화원, 2016.
민병수, 『한국한시사』, 태학사, 1996.
박명희, 「訥齋 朴祥의 忠州牧使 시절 기묘사림과의 시적 교류와 그 의의」, 『국어국문학』 189호, 국어국문학회, 2019.
박준규, 「訥齋 朴祥의 詩文學論攷」, 『놀이 박상의 문학과 의리 정신』, 광주직할시, 1993.
윤사순, 「조선조 의리사상 형성과 놀재」, 『놀이 박상의 문학과 의리 정신』, 광주직할시, 1993.
이종목, 『해동강서시파연구』, 태학사, 199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5069>)

기억되는 이름, 기념되는 장소

-놀재 박상의 충절에 대한 기억과 표상 형성에 관하여-

정하정(계명대학교)

목 차

1. 서언
2. 기억되는 이름 : 박상에 대한 기억의 형성
 - 1) 박상의 충절에 대한 집단 기억화
 - 2) 국가적 제도를 통한 충신으로서의 기억 형성
3. 기념되는 장소 : 박상의 표상을 담지한 장소의 의미
 - 1) 逍遙堂, 교유에서 풍자 공간으로의 전환
 - 2) 三印臺, 충절 실천의 기념 공간으로서의 영속
4. 결어

1. 서언

16세기 호남 지역 사림을 대표하는 인물, 訥齋 朴祥(1474~1530)은 뛰어난 문장가로서 1,200수에 달하는 시와 12편의 賦, 다수의 산문을 지어 조선 전기 문학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겼다. 특히 그의 시는 “기이하고 걸출하며 굳세고 아름다워 진실로 동방의 시 가운데 으뜸으로 꼽을 만하다.”¹⁾라고 할 만큼 높은 평가를 받아서, 일찍부터 연구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에 따라서 1979년 『역주 놀재집』이 간행된 뒤로 그 시의 주제 의식, 주요 특질 등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분석되었다. 그 외 부와 산문에 대한 연구까지 진행되어, 박상의 문학 세계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놀재집』에 대한 판본 연구와 그의 문학과 사상을 아우르는 단행본까지 출간되면서, 박상에 대한 연구사는 어느 문인과 비교해도 풍부하게 집적되었다고 할 만하다.²⁾

본고는 박상이 남긴 문학 작품에 주목한 기존 연구의 흐름에서 벗어나, 박상이 충절의 표상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과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부분적으로 밝혔듯이, 박상은 기개와 절조를 가진 인물로, 종종에 의해 폐위된 端敬王后 愼氏의 복위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일로 그는 유배되었지만, 후대에 충절의 표상으로서 그 위상을 얻게 되었다. 박상을 기록하는 후대의 문헌에서는 그의 충절을 수록하여 전승하였고, 그의 충절과 관련한 장소는 박상의 충절을 상징하는 장치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박상이 충절의 표상으로서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단순한 기록의 유전을 넘어서는, 사회적·문화적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1) 正祖, 『弘齋全書』 권 164, 『日得錄』 4, 「文學」, “奇傑遒麗, 儘是東詩中第一家數.”

2) 종래의 박상의 대한 연구는 다음 두 편의 논문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박상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박영주, 「놀재 박상 문학 연구동향과 작품세계의 특징」, 『동아인문학』 54, 동아인문학회, 2021, 25~61면; 김대현, 「놀재 박상 문학의 연구 현황과 과제」, 『놀재 박상 시문학 연구』, 태학사, 2021, 353~390면. 이 두 논문이 발표된 뒤 제출된 박상에 대한 연구는 아래와 같다. 이지후, 「놀재(訥齋) 박상(朴祥)의 「사십팔영(四十八詠)」시의 창작 양상과 특징」, 『어문론총』 91, 한국문학언영학회, 2022, 147~174면; 이지후, 「놀재(訥齋)의 부(賦) 「몽유(夢遊)」에 나타난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의식」, 『포은학연구』 34, 포은학회, 2024, 77~116면.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는 사회적이지 않은 개인 기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기억이 집단 속에서 구성되고 장소를 통해 구체화 된다고 보았다.³⁾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 역시 제도와 매체를 통해 장기적으로 전승되는 기억을 문화 기억(문화적 기억)으로 정의하며, 의례·기록비·장소 등이 기억이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장치라고 하였다.⁴⁾ 이들에 따르면, 박상이 총절의 표상으로서 기억·각인되는 과정은 후대 왕실과 문인들에 의해 재구성된 집단 기억의 형성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집단 기억은 국가적 제도와 문서 기록, 그리고 장소적 상징 장치를 통해 문화 기억으로 제도화되고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박상에 대한 총절의 표상이 형성되고 전승되는 과정을 집단 기억과 문화 기억의 틀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박상과 관련한 행장·묘지명·제문 등의 기록뿐만 아니라, 삼인대와 소요당 등 그의 총절을 기억하는 매개 장소를 대상으로 삼아 표상의 재현과 기억의 전승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박상에 대한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기억되는 이름 : 박상에 대한 기억의 형성

1) 박상의 총절에 대한 집단 기억화

行狀은 망자에 대한 생애를 살필 수 있는 기초 자료이다. 이는 시간순으로 망자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담고 있지만, 그 안에는 망자의 특정한 모습을 부각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된 서술 장치가 숨어 있다.⁵⁾ 尹衢(1495~?)에 의해 창작된 박상의 행장을 보면, 1940여 자의 길지 않은 편폭에 주로 박상의 굳건한 기개와 총절과 관련한 행적을 담아 서술하고 있다.⁶⁾ 그중 1515년(중종10)에 폐비 신씨 복위를 청하는 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을해년(1515)에 潭陽府使로 있었는데, 淳昌郡守 金淨과 함께 求言하는 교지를 받고 절에 모여 자면서 愼氏의 복위 청하기로 합의하였다. 각자 疏章의 초고를 지어서 빠른 시일에 다시 모였는데 冲庵의 초고를 본 다음, 공은 드디어 붓을 버리고 초고도 내지 않았다. 연명하여 상소하였더니 臺省에서 邪議라고 지목하였다. 조정 신하들이 모두 구언하면서, “말한 자를 죄주는 것은 상 말하는 길을 막는 것이니 죄줄 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3) 모리스 알박스의 집단 이론과 관련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였음. 김영범, 「알박스(Maurice Halbwachs)의 기억사회학 연구」, 『社會科學研究』 6-3,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557~594면; 김범수, 「알박스의 집단기억과 노스의 제도주의와의 대화」, 『제도와 경제』 19-1, 한국제도경제학회, 109~143면.

4) 알라이다 아스만 지음, 변학수·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감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2011, 9~27면 참조. 알라이다 아스만의 기억 이론에 대해서는 아래 다음 논문을 참조하였음. 이종훈, 「문화적 기억의 특성들과 그 특성들의 상호작용 -안 아스만과 알라이다 아스만의 논의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61, 인문콘텐츠학회, 2021, 71~93면.

5) 행장은 객관적 사실 자료를 넘어 작가의 의도에 따라 망자에 대한 기억의 서사를 만들어 내는 일종의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하정, 「損窩 崔錫恒의 삶과 그에 대한 재구 -行狀을 통해 본 최석항에 대한 기억의 서사-」, 『동방한문학』 96, 동방한문학회, 2023, 260~262면 참조.

6) 이는 행장 외에도 宋來熙가 쓴 神道碑銘이나 趙泰億이 남김 諡狀도 마찬가지이다. 宋來熙, 『錦谷集』 권 30, 「訥齋朴先生神道碑銘」; 趙泰億, 『謙齋集』 권 38, 「贈史曹判書行羅州牧使訥齋朴公諡狀」.

대간은 상언하는 길은 작은 일이라 하며 죄주기를 힘껏 청하여서 드디어 도배되었다. 이 때문에 조정 논의가 대립되어 서로 옳고 그름을 다투었다. 병자년 여름에 비로소 공 등이 옳다고 대간과 시종이 교대로 소장을 올려 석방하기를 청하였다. 이해 겨울에 다시 사용되어서 僉正이 되었다.⁷⁾

신씨 복위 상소를 올린 일은 박상의 일생에서 정치적 시련을 경험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 충절의 표상으로 각인되는 사건이었다. 행장을 짓는 저자의 입장에서는 상세히 서술할 만한데도, 윤구는 상소를 올리게 된 경위와 상소가 올라간 뒤의 반향을 간략하게 처리한 뒤, 이듬해 박상이 석방되어 사용되었음을 서술한다. 이 기록만 본다면 이 일은 조선 시대 다수의 관료가 겪었을 법한 것으로 느껴져, 그의 행위가 충절로 각인될 만큼 강한 인상을 주지 못한다. 이러한 점은 安瑤(1519~?)가 지은 『己卯錄補遺』의 「朴祥傳」에서도 비슷하게 보이다가 그 이후 찬술된 『己卯錄續集』의 「構禍事蹟」에 이르면 보다 상세하게 나타난다.

장경왕후는 을해년(1515) 2월 26일에 元子を 낳고, 7일 만에 승하하였다. 그리하여 그때 여론이 연산군의 母后와 慈順王妃가 모두 후궁으로 있다가 승진하여 正妃가 된 일이 있으니, 만일 成宗 조의 전례를 따른다면 朴淑儀와 洪淑容이 모두 장성한 아들이 있으므로 새로 낳은 원자를 보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하고, 사람들이 모두 위태롭게 여기고 두려워하였다. 원자는 곧 우리 仁宗이다. 이때에 冲庵 金淨은 순창 군수로 있고, 訥齋 朴祥은 담양 부사로 있었는데, 조정에서 여론을 듣겠다는 전교를 받고 이들은 공동으로 疏를 올려 항의하기를, “본국의 沈溫이 太宗에게 죄를 지었으나, 소헌왕비의 옥체에는 흠이 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이제 朴元宗의 무리가 스스로 제 일신을 위하려는 피로 君父를 협박하고 國母를 쫓아내어 천하의 큰 명분을 범하였으니, 관작을 삭탈 추방하여 그 죄를 만세에 밝히고, 신씨를 복위시켜 예전 은혜를 온전히 하게 하소서. 그렇게 해야만 옆자리에 있는 후궁들이 엿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⁸⁾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중종의 계비인 장경왕후가 죽자 훗날 인종이 되는 元子を 보호하기 위해 김정과 함께 박상은 상소를 올린다.

여기서 端敬王后 愼氏는 중종의 첫 번째 妃인데 그녀의 아버지 愼守勤(1450~1506)이 중종의 옹립을 반대하였기에 왕비에 책봉된 지 7일 만에 폐위되었다. 이후 중종의 계비인 章敬王后가 원자를 낳고 승하하자, 당시 장성한 아들을 둔 후궁 淑儀 朴氏와 淑容 洪氏는 원자에게 위험 요소였다. 특히 숙의 박씨는 중종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에 그녀의 아들과 원자 간에 알력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였다.⁹⁾ 위 기사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함

7) 『訥齋先生集附錄』附錄1, 「訥齋先生行狀」, “乙亥春, 章敬王后上賓後, 中壺無主, 時災異疊臻, 求聞直言. 先生乃與淳昌郡守金淨上封事, 請復廢妃愼氏正中位, 且論三元勳, 謀爲自全, 建廢國母之失. 於是, 臺諫文章請罪, 天怒震動, 命繫詔獄以鞫之, 群下洵洵, 莫不爲先生危之. 賴大臣救理, 上亦怒其狂直, 只令除名, 配隸于南平之烏林驛.”

8) 『大東野乘』 『己卯錄續集』, 「構禍事蹟」, “章敬於乙亥二月二十六日誕元子, 七日而上賓. 時議以謂, 燕山母后及慈順王妃, 皆以後宮陞爲正妃, 若循成廟朝古例, 則朴淑儀洪淑容皆有長男, 新生元子固難保也, 人皆危懼, 元子則我仁廟也. 是時, 金冲庵淨爲淳昌, 朴訥齋祥爲潭陽府使, 因求言之教, 合辭抗疏, 引本國沈溫被罪於獻陵, 昭憲王妃玉度不玷, 彼元宗輩自爲身謀, 劫制君父, 放逐國母, 犯天下之大分, 追奪官爵, 明其罪於萬世, 請復愼氏, 以全舊恩所以防側位之窺也.”

으로써 박상의 신씨 복위 상소가 정당한 것이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 상소의 내용 중 신씨를 폐위하도록 종용한 박원종의 악행을 지목하는 대목을 인용하여 보여 준다.

위 인용문 뒤로 박상의 주장에 대해 李荇(1478~1534), 權敏手(1466~1517), 李彦浩(1477~1519)가 반박하는 내용이 이어진 다음, 趙光祖(1482~1519)가 이행 등을 배척하며 대간의 직책을 강조하는 장면이 묘사된다.¹⁰⁾ 즉 『기묘록속집』은 기묘사화의 발단이 되었던 사건으로서 박상이 폐비 신씨 복위 상소를 올린 일을 다루고 있는 셈이다. 이를 보면, 기묘사화가 일어난 뒤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에 대한 긍정적 기록이 이뤄지면서, 박상의 복위 상소가 충절로 인식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기묘사회 이후 사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박상의 충절에 대한 집단 기억을 형성하는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모친상으로 기묘사화의 화를 입지 않았던 박상이 사림 계열의 핵심 인물로 평가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박상의 신씨 복위 상소는 숙종 연간에 다시 언급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申奎(1659~1708)가 魯山君과 신씨의 복위를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기 때문이다. 1698년(숙종 24) 신규는 상소에서, 김정과 박상은 군자이며 신씨의 복위를 요청한 그들의 말이 엄격하고 강직하여 능름한 생기가 있다고 하였다.¹¹⁾ 이러한 신규의 상소를 받은 숙종은 이 문제를 신하들에게 물어 의견을 내도록 하는데, 南九萬(1629~1711), 權尙夏(1641~1721) 또한 그 의견을 내면서 박상의 신씨 복위 요청이 올바르고 정당하다고 평가하였다.¹²⁾ 그러나 이 당시 이 둘을 비롯한 다수의 신하는 결국 당대 중종이 복위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신씨의 복위는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¹³⁾ 사실 신씨의 복위 문제는 선왕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신씨의 복위는 해결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박상의 복위 요청 행위도 적극적으로 긍정되기 어려웠다. 그러다 영조대에 신씨의 복위 문제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면서 박상의 신씨 복위 요청은 충절의 행위로 반복 언급된다.

1739년(영조 15) 3월 6일에 영조는 신규의 상소를 거론하며 숙종대에 신씨가 신원되지 못함이 안타깝다고 말한다.¹⁴⁾ 이날에 俞拓基(1691~1767)는 김정과 박상이 신씨의 복위를 요청하였으나 복위가 성사하지 못하였다고 간략히 언급하고,¹⁵⁾ 며칠 뒤에는 金台南이 상소를 올린다.

9) 아래 글에서 이러한 정황을 볼 수 있다. 『중종실록』 10년 7월 26일 1번째 기사, “史臣曰, 時, 淑儀朴氏, 最見昵寵, 有子長於元子, 必與元子相軋.”; 安邦俊, 『隱峯全書』 권11, 「己卯遺蹟」, “時朴淑儀洪淑容, 皆有子. 淑儀子嶠, 年最長, 而淑儀寵冠後宮, 覬覦非分, 朝野疑懼.”

10) 『大東野乘』 『己卯錄續集』, 「構禍事蹟」, “##”

11) 『숙종실록』 24년 9월 30일 1번째 기사, “金淨朴祥, 君子人也. 當章敬王后上賓之初, 疏論元宗等脅君之罪, 極陳愼氏無故見廢之由, 請復位號, 其言森嚴直截, 至今讀之, 凜凜猶有生氣.”

12) 『숙종실록』 24년 10월 24일 3번째 기사, “領府事南九萬以爲, …(중략)… 在中廟當宁之日, 若金淨, 朴祥之陳疏請復, 誠可謂得義理之正.”; “戶曹參議權尙夏以爲 …(중략)… 在當時則金淨, 朴祥之疏, 實爲正當之論.”

13) 『숙종실록』 24년 10월 24일 3번째 기사.

14) 『승정원일기』 영조 15년 3월 6일 24번째 기사, “因此心有所思耳. 昔年申奎疏莊陵事, 已施之, 而愼妃事, 其時間議而不得伸理. 至今思之, 予心興愴, 卿等心亦如此乎?”

15) 위의 글, “金淨·朴祥, 請復位而不果, 中廟後無承命稟達之所, 故歷列聖朝而終未舉議.”

김정과 박상은 그 당시의 명현인데, 장경왕후가 승하한 초기에 朴元宗 등이 임금을 협박한 죄를 상소하여 논하고 愼妃가 아무 이유 없이 폐위된 원통함을 극진히 아뢰어, 位號를 회복하기를 청한 글의 뜻이 삼엄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일단 이 상소를 가져다 읽어 보면 그 광명정대한 논의를 살펴실 수 있을 것입니다.¹⁶⁾

인용문은 김태남의 상소 중 박상과 관련한 내용만 발췌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박상은 신씨를 폐위하도록 협박한 박원종을 논죄하며 광명정대한 논의를 편 名賢이다. 이 상소에 이어 신씨의 복위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많은 이들이 김정과 박상이 올린 상소를 읽고 그 충절에 감동하였다고 하고,¹⁷⁾ 그 과정에서 박상은 忠臣으로서 호명되기도 한다.¹⁸⁾ 심지어는 박상의 후손을 등용하라는 명이 내려지기도 한다.¹⁹⁾ 결국 폐비 신씨의 복위 문제가 영조 대에 이르러 해결되면서 박상은 충절의 표상으로 부상하고 충신으로서 국가의 공인까지 받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박상은 김정과 함께 중종의 폐비 신씨의 복위를 청하는 상소를 올린 행위로 인하여 후대 충절의 표상으로 각인·기억되었다.²⁰⁾ 다만 박상 사후 기록되었던 행장이나 묘지명 등에서는 이 일이 간략히 서술되었던바, 이 자체로 박상이 충절의 표상으로 기억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그러다가 기묘사화 발발 후 기묘사림의 행적이 기록되고 사건이 재정리되면서 박상이 상소를 올린 정황과 그 이후의 반향이 상세히 조명되었다. 기묘사림에 대한 추숭의 맥락에서 박상은 충신의 표상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속종을 거쳐 영조 대에 이르러 폐비 신씨의 복위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박상이 올린 상소는 여러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회자되었고, 자연스레 그는 충신으로 호명되며 국가의 공인을 받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박상의 충절은 기묘사화에 대한 재정리와 신씨 복위 문제 해결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뤄진 집단 기억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국가적 제도를 통한 충신으로서의 기억 형성

앞서 보았듯이, 폐비 신씨의 복위 문제가 영조 대에 이르러 해결되면서, 박상은 충신으로 국가적 공인을 받는다. 1739년에 영조는 먼저 신씨 복위를 창도한 인물이라고 박상을 칭찬하며 그 자손을 등용하도록 전교를 내리고²¹⁾ 이어 치제한다.

16) 『승정원일기』 영조 15년, 3월 11일, 29번째 기사, “金淨·朴祥, 其時名賢也. 當章敬王后上賓之初, 疏論朴元宗等脅君之罪, 極陳愼妃無故見廢之冤, 請復位號, 辭義森嚴, 今殿下試取此疏而循覽, 則可察其光明正大之論矣.”

17) 『승정원일기』 영조 15년 3월 15일, 21번째 기사, “行副司直梁廷虎議曰 …(중략)…有若古名臣金淨·朴祥等, 嘗上章請復位號, 讀其疏, 百載之下, 猶令人激慨.”; “副司直李重協議曰, …(중략)…臣每讀先正臣金淨·朴祥之疏, 未嘗不三復隕涕.”; 『승정원일기』 영조 15년 3월 22일, 31번째 기사, “寅明曰, 金淨·朴祥之疏, 忠肝義膽, 激烈感慨, 誠是名疏, 自上亦曾下覽耶?”

18) 『승정원일기』, 영조 15년 3월 15일, 20번째 기사, “雖有忠臣志士如金淨·朴祥者, 無由更以此進言, 遂成千古之幽鬱, 可勝痛哉?”

19) 『승정원일기』 영조 17년, 1월 21일, 11번째 기사, “翬良曰, 溫陵復位後, 先正臣朴祥·金淨, 奉祀孫錄用事, 命下矣.”

20) 박상이 신씨의 복위를 청하는 상소를 올린 일 하나로 유명해졌다는 다음 기사를 보더라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 영조 15년 3월 11일 26번째 기사, “榮國曰, 章敬賓天之後, 朴祥·金淨上疏, 請復愼妃, 以此一着爲名人矣.”

옛날 우리 중중 때	昔我中廟
여러 현인들이 일어났네	作興群哲
경도 그대에	卿於時也
선비 중에 한 사람이었네	士類中一
...(중략)...	
같은 시대 같은 조정에	併世同朝
신하 김정과 같은 이 있었네	有若臣淨
왕후의 자리를 잃게 되자	壺極失位
슬프고 답답한 심정 모두 절절했네	共切悲鬱
한목소리로 항거하는 상소 올렸으니	齊聲抗章
말은 매우 간단하고 명료했네	言甚直截
강상을 붙잡고 인륜을 바로잡으니	扶綱正倫
충성과 의리가 넘름하였네	忠義凜然
간사한 무리가 독기를 부리니	群壬煽毒
재앙의 기색이 하늘까지 뻗쳤네	禍色彌天
꾸며낸 죄가 매우 참혹하여	羅織孔慘
감옥에 갇혔으나 그의 죄 아니었네	縲絏非罪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했으나	群情咸懼
문정공만이 홀로 아뢰었네	文正獨啓 ²²⁾

영조가 하사한 치제문 일부로, 박상에 대한 충절 기억이 국가의 제도 속에서 재구성됨을 보여 준다. 이 글은 초반부에서 중종 대 기묘사림의 반열에 박상을 놓고, 중반부에서 중종의 비 신씨가 폐위되는 배경을 서술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박상이 신씨 복위 상소를 올린 것에 대해 “강상을 붙잡고 인륜을 바로잡으니 충성과 의리가 넘름하였다”고 극찬한다. 이는 국가의 도덕적 질서를 회복하는 공적인 의미로 박상의 충절이 갖는 의의를 확대한다. 이에 의하면, 박상의 상소는 단순히 정치적 행위가 아닌, 유교 국가의 이념을 구현하는 행위가 되는 셈이다. 또한 박상이 이 상소로 인해 비판을 받고 유배되는 과정을 간사한 무리가 죄를 꾸민 것이라고 설정하여 박상의 무죄를 강조하고 그 충절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인용문 마지막의 문정공 조광조만이 박상을 변호했다는 내용 또한 박상의 행위가 결국 사림의 도학 정치의 이상과 결부됨을 암시한다. 이러한 제문을 통해서 박상의 충절에 대한 표상은 조정의 일시적 평가가 아니라, 후대 국가가 공인하는 正典的 서사로 완결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박상에 대한 충신으로서의 국가적 공인은 정조 대에도 연이어 나타난다.

1788년(정조12)에 溫陵令 崔昌國은 상소하여, 단경왕후의 폐위를 유도한 박원종 등의 관직을 추탈하고 단경왕후의 능인 온릉에 비석을 세울 것을 청하며²³⁾ 박상의 충절을 언급한다.²⁴⁾ 그로부터 7년이 지난 1795년(정조19)에는 호남의 유생들이 상언하여 박상의 신위를

21) 『訥齋集』 卷首別編, 「傳教」, “今日復位之議, 先倡者兩人也. 一脈正義, 予所嘉尚, 分付該曹, 求得嗣孫, 別爲調用.”

22) 『訥齋集』 卷首別編, 「賜祭文」.

23) 『승정원일기』, 정조 12년 9월 21일, 23번째 기사.

24) 위의 글, “先正臣金淨朴祥, 合辭抗章, 辭旨激慨, 凜乎如秋霜烈日, 扶萬古之綱常.”

영구히 사당에 모시도록 하는 이른바 不祧之恩을 청한다.²⁵⁾ 정조는 이를 허락하고 박상을 위해 치제한다.

경은 일개 수령으로 임명되어	卿一墨綬
대궐문에서 부르짖으며 피를 뿌렸네	叫闈瀝血
무너지려는 기강을 일으켜 세우니	樹紀將頽
이미 죽은 간악한 자까지 주벌했네	誅奸既骨
곧은 말과 바른 기운은	直辭正氣
온통 하늘 끝까지 닿았네	摩切穹玄
천 길 벼랑처럼 우뚝하니	壁立千仞
그 끼친 기풍은 늙연하였네	遺風凜然
...(중략)...	
삼인대에는	三印之臺
소나무는 늙고 돌은 갈라 터졌네	松老石皴
영령이 없지 않을 것이니	英靈不泯
술과 제문을 함께 올리네 ²⁶⁾	酒與詞陳

정조의 명에 의해 지어진 致祭文의 일부이다. 우선, 박상의 상소 장면을 ‘대궐문에서 부르짖으며 피를 뿌림[叫闈瀝血]’이라고 극적으로 구성한 대목은 비장함을 더한다. 또 ‘이미 죽은 간악한 자까지 주벌하였다[誅奸既骨]’, ‘온통 하늘 끝까지 닿았다[摩切穹玄]’, ‘천 길 벼랑처럼 우뚝하다[壁立千仞]’ 등의 과장된 표현은 박상의 충절을 한층 더 숭고하게 승화한다. 마지막에 ‘三印臺’에 대한 언급은 박상에 대한 충절 표상의 공간적 상징성을 강화한다.²⁷⁾ 이러한 면은 영조의 치제문에서는 볼 수 없는 점이다. 다시 말해, 영조의 치제문에 의해 박상의 충절을 재해석하는 국가적 문화 기억이 형성되었다면, 정조의 치제문에 의해서는 박상에 대한 충절의 표상이 보다 강렬하고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정조의 치제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씨가 단경왕후로 복위되고 60년이 지난 1799년에 정조는 다시 치제문을 내린다.

경은 담양 고을을 맡아	卿任潭州
덕이 같은 이와 이웃이 되었네	同德爲隣
삼인대야말로	三印其臺
만고토록 닳아 없어지지 않으리라	萬古不磷
내가 坤位를 바로 세우려는데	我扶坤維
그 누가 조정에서 시비를 다투었던가	彼誰廷囂
공론이 정해짐 백년을 기다려야만 했으니	論定必百
기미년부터였네	自己未年
선왕께서 탄식하시며	先王曰咨

25) 『訥齋集』 卷首, 「傳教」; 『승정원일기』 정조 19년 10월 14일 32번째 기사.

26) 『訥齋集』 卷首別編, 「賜祭文」.

27) 박상의 충절을 담지한 장소로서의 삼인대에 대해서는 3장에서 본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주현이 끊어진 듯 슬퍼하셨네	愀如朱絃
홀(笏)을 찾고 후손을 등용하여	索笏錄後
남긴 곧음을 버리지 않았네	遺直罔捐
옛적에 이미 행한 일이었거늘	古則行之
지금 이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今可忽焉
사당의 신주에 영원히 제향하고	祠版永享
먼 후손들도 대대로 베풀하게 했네	雲仍世官
태실에 배향하여 받들게 함은	太室庭食
예가 무겁기에 우선 보고만 있을 뿐이네	禮重且觀
이해에 술 한 잔 올리는 것은	是歲一酌
육십 년이 돌아온 감회가 있기 때문이라네	爲感支干
붓을 잡고 경의 기풍을 생각하니	握管懷韻
송백처럼 곧은 기상이라네 ²⁸⁾	松柏丸丸

인용문은 1795년의 치제문과 판이하게 다르다. 여기에서는 주로 영조에 의해 신씨 복위 문제가 해결된 이후 박상이 충신으로서 국가의 공인을 받았음을 보여 준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손의 등용, 不祧의 허락인데, 이는 박상을 위한 국가적 의례가 성립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아직 결행하지는 못하였지만 종묘 배향을 고려하는 듯한 대목[太室庭食 禮重且觀] 역시 제례 제도를 통해 박상에 대한 충신으로서의 기억을 강화한다. 즉 여기에서 보이는 박상을 위한 국가적 의례는 그의 충절 표상이 국가의 문화 기억 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전화 되었음을 내포한다. 게다가 여기에서도 삼인대를 언급함으로써 박상의 충절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적 지지체로서 기능하게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폐비 신씨의 복위가 영조 대에 이루어지자 박상의 복위 상소 역시 재조명되었고, 이에 따라 영조는 박상을 위해 치제하였다. 이후 정조는 不祧之典을 내릴 때와 신씨 복위 60주년을 맞았을 때 각각 그를 치제하였다. 신씨 복위 상소 사건을 충절 실현으로 재구성하고 권신의 탄압을 부정의로 규정한 영조의 치제문은 박상의 충절이 국가가 공인하는 서사로 완결되었음을 함의하였다. 또 상소 장면을 비장미로 극대화하고 국가의 의례에 의해 충신으로 공인됨을 강조하며 박상의 충절에 대한 기억 공간으로서 삼인대를 소환한 정조의 치제문들은 박상의 충절 표상이 국가적 권위 속에서 강렬한 문화 기억으로 각인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박상의 복위 상소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행위를 넘어 도학 국가 이념을 구현하는 이상적 忠信의 像으로 국가적 문화 기억 체계에 확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3. 기념되는 장소 : 박상의 표상을 담지한 장소의 의미

- 1) 逍遙堂, 교유에서 풍자 공간으로의 전환

28) 正祖, 『弘齋全書』 25권, 「文簡公朴祥致祭文」.

逍遙堂은 沈貞(1471~1531)이 陽川縣에 지은 정자로 逍遙亭이라고도 한다. 심정의 손자인 沈守慶(1516~1599)이 이곳에 대해 “漢江 이남의 강 연안에 있는 정자 중에서 가장 승경”²⁹⁾이라고 할 만큼 그 주변 풍광이 뛰어났다. 심정은 이곳에 당시 명사들의 시를 구해 걸어 두었는데 그 명사 중 박상도 포함되어 있었다.

본래 용문에 오른 객 좋아하니	本好龍門客
이에 봉혈의 병아리를 기른다네	仍將鳳穴雛
틈이 나면 대가마 타고 목욕하고	筍輿乘暇沐
사모 차림으로 한껏 즐겁게 지내네	紗帽縱權愉
난간 밖엔 배들이 날 듯이 가고	檻外颺颺鷁
처마 앞엔 그물이 철썩 쳐지네	簷前濺濺眾
산허리에 안주상을 차렸고	半山排案俎
가을 골짜기에 술통을 마련했네 ³⁰⁾	秋壑關樽孟

박상이 심정의 요청에 지은 「題逍遙堂」이다. 총 40운으로 구성된 장편 배율인데, 인용문은 후대 많이 회자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한 것이다. 인재를 좋아하며 한가롭게 지내는 정자 주인이 잔치를 베푼다는 내용과 소요당 주변의 자연 풍광이 서술되어 있다. 소요당에서의 한적함과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작품 전체에 관통한다. 소요당을 소재로 한 박상의 또 다른 시에서도 다르지 않다.³¹⁾ 이로 보면, 소요당은 심정이 교류 인물을 불러 자연을 완상하는 장소였고 박상은 그러한 소요당을 시로 잘 표현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인용문 마지막의 두 구였다. 표면적으로 정자의 주인인 심정이 잔치를 마련한 것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半山’은 ‘秋壑’은 심정을 풍자하는 글귀였다. 반산은 송나라 때 신법을 시행하여 구법당과 갈등을 빚으며 문제를 일으켰던 王安石의 호이고, 추학은 송나라의 간신으로 유흥을 즐겼던 賈似道의 호였기 때문이다. 즉 박상은 “몸은 비록 고관대작 지냈으나 자연에 은거하려는 뜻 감히 바뀌라³²⁾.”라고 하여 심정의 은거를 찬양하는 듯하였으나 사실 그를 왕안석과 가사도에 빗대어 풍자한 것이다. 이러한 심정에 대한 박상의 풍자는 소요정이라는 장소하면 연상될 만큼 대표성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심정이 놀재 박상에게 시를 써 달라고 청했는데, 놀재가 써 준 시의 1연에 “낙엽은 가을 골짜기에 쌓이고 석양은 산중턱에 걸려 있다다.[落葉藏秋壑 斜陽映半山]”라는 내용이 있었다. 심정이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야 그것이 隱語라는 것을 비로소 알고는 크게 화를 내며 뜯어서 불태워 버렸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이는 柳亭公(張玉)이 서문을 지을 때 놀재처럼 하지 못했다고 유감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내 나름대로의 생각으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자야말로 정말 식견

29) 沈守慶, 『遣閑雜錄』, “吾祖父作堂於陽川縣東北孔巖西江岸上, 名曰逍遙, 其形勝爲漢江以下沿江亭樹之最.”

30) 朴祥, 『訥齋集』續集 권1, 「題逍遙堂」.

31) 朴祥, 『訥齋集』續集 권1, 「次逍遙堂浩叔韻」

32) 朴祥, 『訥齋集』續集 권1, 「題逍遙堂」, “簪紱身雖染, 林泉志敢渝?”

이 얇은 자라고 해야 하리라 여겨진다. 넉지시 비꼬는 말은 함축성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을 골짜기나 산중턱과 같은 표현을 보면 물론 심정을 배척한 말이라는 하지만 너무 폭로시킨 점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³³⁾

張維(1587~1638)의 「書逍遙堂序後」이다. 이 글은 자신의 선조 張玉(1493~?)이 쓴 「逍遙亭序」를 부연하는 성격이 강하다. 인용문과 같이, 장유 역시 소요당을 소재로 한 시 중 박상의 시를 언급하며 그것이 풍자였음을 말한다. 이어서 장옥의 서문이 박상의 시만 못하다는 평가에 반박하면서, 박상의 풍자가 다소 노골적이란 점을 지적한다.

당대 박상의 시가 장옥의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점과 장유가 장옥의 작품에 대한 재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박상의 시를 비교한 점을 감안하면, 소요정과 관련한 박상의 시는 그 풍자로 인하여 획득된 대표성이 꾸준히 전승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유가 인용한 박상의 시가 실제로 박상이 지은 것이 아니라는 점도 흥미롭다. “낙엽은 가을 골짜기에 쌓이고 석양은 산중턱에 걸려 있다도.[落葉藏秋壑 斜陽映半山]”라는 구절은 박상의 그것과 유사하긴 하지만 분명히 다르다. 이는 金堉(1580~1658)의 『海東名臣錄』과 金樛의 「丙丁瑣錄」에 의하면 이는 申光漢(1484~1555)의 시구이다. 이 외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떤 사람의 시구라고 기록한 문헌도 있다.³⁴⁾ 그러나 이 시를 박상의 시라고 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장유가 신광한의 시를 박상의 시라고 잘못 알고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박상의 소요정 시가 갖는 대표성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다.

재상 沈貞이 양천에 소요정을 짓고 당시의 글깨나 한다는 자들의 글을 두루 청하여 현판으로 걸었다. 그래서 놀재 박상이, “반산허리에 안주상을 차렸고, 가을 골짜기에 술통을 마련했네.[半山排案俎 秋壑閣樽盃]”라고 하였는데, 심정은 자기를 譏弄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현판에서 뽑아 버렸다. 그런데 조광조가 호남으로 귀양 갔다가 죽어서 返葬할 때에 박상이 시를 지어서 통곡하기를 “원(院) 앞에서 작별하면서 일찍이 손을 잡고, 황각에서 벼랑으로 떨어지는 그대가 이상했지. 벼랑이니 황각이니 분별은 해서 무엇하랴, 저승에 가서 본다면 아무런 차이가 없으리.[分手院前曾把手, 怪君黃閣落朱厓. 朱厓黃閣莫分別, 方到九原無等差.]”라고 하였다.³⁵⁾

李裕元(1814~1888)은 『林下筆記』에서 전국 각지의 정자에 대해 위치, 건축 시기, 유래 등의 간략한 정보를 정리하였는데,³⁶⁾ 인용문은 「逍遙亭」이라는 제목에 딸린 기사이다. 위에

33) 張維, 『谿谷集』 권3, 「書逍遙堂序後」, “初貞請詩於朴訥齋祥. 訥齋有一聯曰, 落葉藏秋壑, 斜陽映半山. 貞初不覺, 既久, 始知其爲隱語, 乃大怒, 撤而焚之. 人以柳亭公序文不能如訥齋爲可恨, 維竊謂爲此論者, 殆淺之爲丈夫也. 譏諷之辭, 貴乎含蓄. 秋壑半山之語, 其斥貞也固矣. 然得無大呈露乎?”

34) 安鍾和, 『國朝人物志』 1, 「沈貞」; 徐有本, 『左蘇山人集』 권, 「楊花渡」.

35) 李裕元, 『林下筆記』 13권, 「逍遙亭」, “沈相貞, 於陽川, 構逍遙亭. 遍請一時作者, 以懸板. 朴訥齋祥, 有半山排案俎, 秋壑閣樽盃, 沈知其譏已, 拔去. 趙靜菴謫湖南, 返葬, 朴訥齋, 以詩哭之曰, 分手院前曾把手, 怪君黃閣落朱厓. 朱厓黃閣莫分別, 方到九原無等差.”

36) 이는 『임하필기』 내 건축물과 관련한 대부분의 기사에서 확인된다. 일례로 ‘廣寒樓’ 기사를 든다. 李裕元, 『林下筆記』 13권, 「廣寒樓」, “樓在南原樓南二里, 舊名廣通樓. 歲久頽廢. 世宗甲寅. 府使閔恭改構. 鄭麟趾改今名. 黃守身撰記. 宣朝丁酉倭亂燬. 己亥. 府使元愼. 畧構小樓. 仁祖丙寅. 府使申鑑. 始重建.”

서 보이듯이, 이유정은 소요정 관련 정보를 나열하는 대신 박상이 지은 시를 소개한 다음 심정이 그 시를 현판에서 제거하였다고 한다. 그만큼 소요정은 심정의 교유 공간이 아니라 박상이 심정을 풍자한 장소로서 그 상징성을 확고하게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박상의 작품이 소요정 관련 시의 대표성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왕안석과 가사도에 비겨 풍자한 인물이 바로 심정이었기 때문이다. 주자하다시피 심정은 南 衮(1571~1527)과 함께 조광조 등을 포함하여 기묘사화를 일으킨 주역이었다. 심정이 양천으로 물러나 소요정을 지었던 1516년(중종11)은³⁷⁾ 기묘사화(1519)가 일어나기 전이라 박상이 심정과 어울릴 수 있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당시 이미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 사림이 심정을 탄핵하였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박상은 심정을 의도적으로 풍자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박상의 시구에 대한 후대의 인식이다. 위 인용문을 보면, 이유원은 그저 소요당에 대한 박상의 시구만 기술하지 않고 조광조에 대한 박상의 시구를 대조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심정에 대한 박상의 풍자는 조광조를 애도하는 마음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박상의 소요정 시가 그 대표성을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기묘사화를 일으킨 심정을 풍자하였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소요정은 심정의 교유 장소라기보다는 박상이 심정을 풍자한 장소로 알려졌던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풍자는 그의 강직한 성품이나 기개와 직결되어 소개되면서³⁸⁾ 소요정은 박상의 충절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적 지지체가 될 수 있었다.

사실 심정의 소요정을 소재로 하는 시는 여러 문인에 의해 많이 창작되었다. 그럼에도 박상의 시는 심정을 풍자한 시구가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었고, 소요정이라는 하면 박상의 시구가 연상될 만큼 소요정 소재 시의 대표성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그 시구가 기묘사화를 일으킨 심정을 풍자하기 때문에, 후대에서는 박상의 강직한 성품을 보여주는 일화로 소개되기도 하고 조광조를 애도하는 시와 대조적으로 기술되기도 한다. 그에 따라 소요당은 더 이상 심정의 교유 장소가 아니라 박상의 풍자 공간으로서 변모하였고, 나아가 박상의 강직한 품성과 나아가 충절을 기억하는 장소로 인식될 수 있었다.

2) 三印臺, 충절 실천에 대한 기념 공간으로서의 영속

1515년 순창 군수 김정, 담양 부사 박상, 무안 현감 柳沃(1487~1519)이 모여서 폐비 신씨 복위 상소를 작성한 곳이 있으니, 바로 순창군의 三印臺이다. 세 사람이 그곳의 소나무에다 官印을 걸고 상소를 올리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정조의 치제문에서도 언급된 이 삼인대에는 비석이 있는데, 1744년(영조20)에 세워진 것으로 李穡(1680~1746)가 그 비문을 썼다. 이 비문은 서두에서 삼인대의 위치와 이름의 유래를 간략히 소개한 뒤 단경왕후가 폐위된 사건과 박상 등이 신씨의 복위 상소를 올린 일을 설명한다. 아래는 그 뒤의 단락이다.

37) 張維, 『谿谷集』 3권, 「書逍遙堂序後」, “按先王父筆記, 正德丙子年間, 貞勑江榭于陽川孔巖之西, 扁曰逍遙.”

38) 대표적인 예를 든다. 任輔臣, 『丙辰丁巳錄』, “朴訥齋祥, 性簡伉少許可, 嫉惡之心, 出於天性. 以此不容於朝, 雖至累黜終不改也. 沈相貞於陽川構逍遙亭, 遍請一時作者, 以題懸板. 公有半山排案俎秋壑閣樽盃之句, 沈相知其譏已, 遂拔去.”

상소의 초안을 작성할 때 세 개의 관인을 소나무 사이에 걸어 놓았다고 하는데, 충의로 인해 분발한 풍모를 아직도 볼 수 있는 듯하다. …(중략)… 아아, 이 대는 경치가 훌륭한 바위와 내가 있어 고금에 많은 벼슬아치가 다녀갔으나 그들은 모두 눈을 스쳐 지나가는 안개나 구름처럼 사라지고 오직 세 선생의 유풍만이 곳곳하게 사라지지 않았으니, 어찌 군신과 부자의 윤리가 불변하는 천지처럼 만세토록 영원히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숙종 기묘년(1699, 숙종25)에 현감 申奎의 말로 인해 신비의 위호를 복구하려고 하였으나 조정의 의론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 시행하지 못하고 別廟를 만들어 봉안하였다. 금상 기묘년(1739, 영조15)에 다시 신하들의 의견을 모아 분명하게 聖斷을 내려 사후에 신씨의 위호를 올려 ‘端敬王后’라 하고 태묘로 옮기고, 능을 ‘溫陵’이라 하였다. 이에 두 선생에게는 모두 관직을 추증하고 제사를 지내 주었다.

아, 선생들의 의론이 비록 한때 퍼지지는 못하였으나 백년 후에 끝내 퍼졌으니, 천명이 정해지면 반드시 사람을 이긴다는 것이 확실하다. 시비가 이미 크게 정해졌으니 저 훈신이라는 자들이 오히려 從享되는 반열에 편안히 끼어 있을 수 있겠는가.³⁹⁾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먼저 이재는 상소 초고를 작성할 당시 세 사람이 각자 입장을 소나무에 걸어 두었다는 사실을 소개한다. 이는 충절 행위의 구체적 실천 흔적을 삼인대라는 장소에 각인하는 효과를 지닌다. 또한 삼인대를 지나쳐 갔던 많은 벼슬아치는 사라졌지만 세 사람의 유풍만은 남아 있다는 표현은 박상 등의 충절이 영속될 수 있는 기념적 공간으로서 삼인대의 의미를 나타낸다. 나아가 그 충절이 절대적 국가의 도덕 질서, 즉 불변하는 군신과 부자의 윤리로 귀결되는 대목은 삼인대에 각인된 박상의 충절에 대한 기억이 일시적 논쟁 대상이 아니라, 유교적 국가 질서의 본질을 구현한 절대적 행위임을 선언한다. 마지막으로 숙종 대를 지나 영조 대에 신씨의 복위 문제가 해결되며 박상 등이 충신으로 공인되는 과정을 그린 부분은 박상의 상소 행위가 천명에 따른 정의의 실현임을 증명한다. 이로써 박상의 복위 상소 사건은 국가 도덕 질서를 구축한 핵심 서사로 완결성을 갖게 된다.

이처럼 삼인대는 박상의 충절에 대한 기억이 구체적 공간 속에 확립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소이다. 이러한 삼인대에 각인된 박상의 충절은 문화 기억으로 형성되어 전승되어 갔다. 그러한 정황은 1850년(철종1) 東堂 初試 때 申佐模(1799~1877)이 출제한 策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제에서의 “삼인대 위에서 세 사람이 앉아 상소문을 지은 것은 무슨 일인가?”⁴⁰⁾라는 물음은 박상 등 세 사람이 삼인대에서 신씨 복위 요청 상소를 작성했던 사실을 모르면 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음이 책제 나왔다는 것은 삼인대에 각인된 문화 기억이 확산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39) 『訥齋集』附錄 권2, 「三印臺碑銘」, “方草疏時, 掛三印於松樹間云, 忠義奮發, 尙若可見. …(중략)… 嗚呼! 是臺也, 有巖川之勝, 古今閱幾多冠蓋, 而都如煙雲之過目, 惟三先生之風, 凜乎其不死, 豈不以君臣父子之倫, 天經地義, 亘萬世而長存者耶? 肅宗己卯, 因縣監申奎言, 將復愼妃位號, 廷議多岐, 不得行, 作別廟以奉之. 今上己未, 復會群臣議, 聖斷赫然, 追上愼氏號曰端敬王后, 躋于太廟, 陵曰溫陵. 於是, 二先生皆贈官賜祭. 嗚呼! 先生之議, 雖屈於一時, 而終伸於百載之下, 信乎天定之必能勝人也. 是非既大定矣, 彼勳臣者尙可晏然於從享之列耶?”

40) 申佐模, 『澹人集』 권16, 「策題」, “三印臺上, 鼎坐而草疏何事?”

눌개는 그날 충암을 이끌고 나섰으니	訥齋當日拉沖庵
피 뿌려 올린 상소는 범상치 않은 일이었네	瀝血封章事不凡
충분으로 맹세하는 마음 응당 스스로 허락하였고	忠憤誓心應自許
문신들 손뼉을 정도라 또 누가 참여하였겠나	文宗屈指更誰參
떠돌던 매복은 오나라 문에서 눈물 흘리고	飄零市卒吳門淚
초췌한 굴원은 우임금의 장지를 찾네	憔悴纍臣禹穴探
그들의 발자취 또렷한데 사람은 멀리 떠났으니	遺躅宛然人已遠
등불 하나 밝힌 추운 밤 승방에 앉아 있네 ⁴¹⁾	一燈寒夜坐僧龕

위는 삼인대를 소재로 자신의 소회를 서술한 高敬命(1533~1592)의 시이다. 고경명은 박상과 김정이 상소를 올린 행위에 대해 피를 뿌렸다는 표현으로 비장하게 표현하고, 그것이 집단적 정치 행위가 아닌 개인의 도덕적 결단과 희생을 기반으로 이뤄졌음을 부각한다. 또 한나라 때 成帝에게 외척을 경계하는 상소를 올렸던 梅福과 소인의 참소로 인해 쫓겨난 초나라의 屈原을 들어 박상 등이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되었던 상황을 비유적으로 보인다. 여기까지는 박상의 충절을 기리는 내용으로 삼인대라는 장소의 특성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박상이 죽고 자취만 남아 있다는 7구와 추운 밤 승방의 등불 앞에 앉아 있는 화자의 모습을 그린 8구는 그와 다르다. 즉 7구는 박상의 충절에 대한 기억의 지속적 현전 공간으로서 삼인대의 기능을 강조하였다면, 8구는 박상에 대한 충절의 기억이 자신의 성찰하게 하는 매개임을 암시한다. 결국 삼인대는 시간이 지나도 충절의 자취가 살아남아 후대의 윤리적 성찰을 이끌어 내는 살아 있는 기억의 장소인 것이다. 이러한 점은 1893년(고종30) 삼인대의 碑閣을 중수하고서 남긴 奇宇萬(1846~1916)의 重修記에서도 보인다.

정조의 御製에 “삼인대야말로 만고토록 닳아 없어지지 않으리[三印其臺萬古不磷]”라는 여덟 글자의 칭송이 있다. 고을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 이를 새기고 비각을 세워서 보호하였는데 금상 계사년(1893, 고종30)에 이르러 중수하였다. 아아, 돌은 갈라질 수 있으나 삼인대 이름은 민멸되지 않을 것이며 세월이 더욱 오래될수록 여덟 글자의 칭송은 더 빛날 것이다. 비각을 중수하는 것은 중요하다 할 수 없으나 지금이 어떤 날인가? 적신이 임금을 위협하여 모후의 복수를 갚지 못하였고 하늘의 윤리와 백성의 도리가 남김없이 무너져 버렸다. 지금 중수할 때 이 시대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한다면 아마도 명성과 절개를 갈고 닦는 데에 조금의 도움이 될 것이다.⁴²⁾

이 작품의 전반부는 앞선 제시한 이재의 글 중 밑줄 친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위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다. 기우만은 정조의 치제문에서 언급한 ‘三印其臺萬古不磷’의 구절을 비석에 새긴 사실을 언급하고 이 문구로 인하여 삼인대가 충절의 상징적 장소로서 오랫동안 기억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정조의 이 구절이 삼인대의 상징적 권위를

41) 高敬命, 『沖庵集』年譜 下, 「諸家吟詠」.

42) 奇宇萬, 『松沙集』 권17, 「三印臺碑閣重修記」, “正廟御製, 有三印其臺萬古不磷八字寵褒, 郡人士樹碑以刻之, 建閣以庇之, 至今上癸巳, 再重修. 嗚呼! 石可泐兮, 三印之名不泐, 世愈久兮, 八字之褒彌光. 所修於閣者, 不足爲有無, 而今日又何日? 賊臣脅君, 母后之讎未復, 天彝民則, 銷摧無餘. 及今重修, 使時人改觀, 則庶可爲砥礪名節之一助耶.”

부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오늘날의 상황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적신이 임금을 위협하여 모후의 복수를 갚지 못하고 윤리가 무너졌다는 말은 국가 도덕 질서가 회복되지 못한 채 기울어져 가는 조선 말기의 정치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는 작가의 목소리이다. 이는 삼인대에 대한 문화 기억이 현재의 현실을 비판하고 개선하는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우만이 정조의 치제문에 언급된 글자 지목하여, 물리적 기념물인 비석은 훼손될 수 있으나 총절의 표상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우만의 이 글은 삼인대가 과거 총절의 실현을 상징하는 공간임과 동시에, 현재의 도덕 질서를 환기하는 살아 있는 윤리 실천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삼인대는 박상을 비롯한 세 사람이 단경왕후 복위 상소를 준비하며 실질적 총절을 실천한 장소였다. 이곳은 비석이 세워지고 지어지면서 박상의 총절에 대한 문화 기억을 형성하는 기념물로 거듭났고, 그 비문에 의해서 박상의 복위 상소 사건이 국가 도덕 질서를 구축한 핵심 서사로 완결성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삼인대에 각인된 박상의 총절에 대한 문화 기억이 확산되는 동시에, 삼인대의 비석이 세워지고 비각이 중수되면서 삼인대는 후대의 윤리적 성찰을 이끌어 내는 장소로서 거듭났다. 말하자면 과거의 총절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매 시대의 도덕 질서를 점검하는 살아 있는 문화 기억의 장치로서 삼인대는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었던 것이다.

4. 결어

본고는 박상이 총절의 표상으로 자리매김되는 과정을 집단 기억과 문화 기억 이론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박상의 폐비 신씨 복위 상소는 당대에는 정치적 갈등과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배라는 시련으로 이어졌지만, 이후 후대의 정치적 정황과 도덕적 해석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총절의 전범으로 부상하였다. 초기의 행장이나 묘지명에서 간략히 서술되었던 복위 상소 사건이 기묘사화 이후 기묘사림의 재조명 속에서 적극적으로 해석되었고, 숙종과 영조, 정조 대를 거치며 국가 권위에 의해 공인되어 총신의 표상으로 정전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박상의 총절에 대한 집단 기억의 형성 과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박상의 총절 표상은 특정 장소와 결합하며 더욱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문화 기억으로 확립되었다. 소요당은 본래 교유와 은일의 공간이었으나 박상이 심정을 풍자한 시문으로 인해 풍자의 상징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심정이 기묘사화를 일으켰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박정의 풍자는 그의 강직한 품성과 총절로 결부될 여지가 컸다. 따라서 소요당 역시 박정의 총절을 간접적으로 표상하는 공간이 될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삼인대는 박상 등의 세 사람이 신씨 복위 상소를 준비한 구체적인 총절 실천 현장으로 기억되었으며, 비석을 세우고 비각을 중수하는 과정에서 삼인대에 각인된 박상의 총절 표상은 개인이나 국가의 도덕 질서를 환기하는 살아 있는 윤리 실천의 장으로 소환되었다.

결국 박상의 총절 표상은 하나의 사건이 도덕적 의미를 중심으로 재해석되고 그것이 국가의 공인을 받으며 특정 장소를 통해 기념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집단 기억과 문화 기억이

형성되고 강화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인의 윤리 실천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국가적 문화 기억으로 형성되고 고착되는 과정을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연구 방법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동아시아 유교 정치 문화 속 다양한 충절 표상이나 장소 관련 기억 연구를 진행한다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는 훗날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 참고문헌

『놀이집(訥齋集)』의 현대적 활용방안

- 교육, 문화콘텐츠, 지역 문화관광을 중심으로 -

김광명 (성균관대학교)

목 차

1. 머리말
2. 박상의 생애와 『놀이집』의 구성
3. 『놀이집』의 현대적 활용방안
 - 1) 교육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
 - 2) 문화콘텐츠 자원으로서의 『놀이집』
 - 3) 지역 문화관광과 『놀이집』
4. 맺음말

국문 초록

본고는 조선 중기의 대표적 문인이자 강직한 선비였던 놀재 박상(朴祥, 1474~1530)의 문집 『놀이집(訥齋集)』의 현대적 활용 방안을 교육, 문화콘텐츠, 지역 문화관광의 세 가지 측면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놀이집』은 당대 지식인의 사상과 문학적 면모를 담고 있는 귀중한 문헌으로, 그의 강직한 선비 정신, 유불도 사상의 융합적 사유, 그리고 자연 친화적 시풍은 현대 사회에 다양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중종비 신씨 복위 사건(中宗妃愼氏復位事件)과 같은 주요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대의명분 중시 사상은 인성 교육의 중요한 자료가 되며, 그의 문학 작품은 중·고등학교 한문과 및 한국 산문 교육의 심화 학습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생애와 작품에 나타난 극적인 요소들은 웹툰,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원천 서사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송호영당(松湖影堂)을 비롯한 그의 활동지 및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문학 기행 코스와 연계 상품 개발은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놀이집』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고전의 대중적 확산과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어: 놀재 박상, 놀재집, 한국산문, 한문교육, 고전 문화콘텐츠, 지역 문화관광

1. 머리말

박상(朴祥, 1474~1530)은 조선 중종 대의 학자이자 문신으로, 중종반정 이후 조선의 정치적 격변 속에서 다양한 관직을 두루 거치며 지식인의 면모를 드러내었던 인물이다. 특히, 중종반정(中宗反正) 이후에 중종의 비 단경왕후(端敬王后) 신씨(愼氏)의 복위를 주장하며 상소를 올렸다가 남평(南平)으로 유배당하였는데, 이 사건을 통해 그의 지조와 직언의 자세가 드러났다.¹⁾

『눌재집』은 그의 정치적 신념과 학문적 성과를 담고 있으며, 시(詩)와 부(賦), 소(疏), 논(論) 등 다양한 문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조선 중기 사림과 문인들이 지닌 도학적 가치관과 시대적 고민을 반영한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시문 중심의 편찬 체계와 함께 중종반정 및 신씨 복위 상소 등 역사적 쟁점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치사·문학사 양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눌재 박상과 그의 문집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다.

고전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한문학 고전은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와 사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며,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인간 본연의 가치를 되새기고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선 중기 강직한 선비이자 호남 시단의 조종(祖宗)으로 평가받는 눌재 박상의 문집 『눌재집』을 중심으로, 이 고전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다각도로 탐색하고자 한다.

『눌재집』은 박상의 문학적 역량과 시대 인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헌이다. 그의 생애는 연산군과 중종 시대를 관통하며 격동의 정치 상황 속에서 강직한 기개와 대의명분을 지키려 노력했던 한 선비의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단경왕후 신씨 복위 상소는 그의 이러한 면모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으로, 이는 현대 사회의 정의 실현 및 소신 있는 삶의 가치와도 연결된다. 또한, 『눌재집』에 수록된 방대한 양의 시와 산문은 그의 깊이 있는 사상과 뛰어난 문학적 기량을 증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눌재집』은 그 가치에 비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지 못하였으며, 현대적 활용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 또한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눌재집』의 현대적 활용방안을 교육, 문화콘텐츠, 지역 문화관광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적 측면에서는 『눌재집』이 인성 및 가치 교육, 융합 교육, 그리고 특히 한문학 및 한국 산문 교육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둘째, 문화콘텐츠 측면에서는 『눌재집』에 내재된 서사적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 가능성을 탐색한다. 셋째, 지역 문화관광 측면에서는 눌재 박상과 관련된 역사적

1) 『中宗實錄』 22卷, 10년 8월 8일 기사에 폐비 신씨의 복위를 간한 담양 부사 박상 등의 상소문이 상세하게 실려 있다. “潭陽府使朴祥、淳昌郡守金淨, 同上封事, 其疏曰, ……(中略)…… 有難悉獻, 伏惟殿下垂察焉.”

장소 및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문학 기행 코스 개발과 지역 특화 상품 기획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놀이재집』이 단순한 옛 문헌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박상의 생애와 『놀이재집』의 구성

박상은 자는 창세(昌世), 호는 놀재(訥齋)로, 1474년(성종 5)에 광주광역시 방하동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충주(忠州)로, 조부는 성균 진사(成均進士) 박소(朴蘇)이고, 아버지는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 박지흥(朴智興)이다. 어머니는 계성 서씨(桂城徐氏)로, 생원 서종하(徐宗廈)의 딸이다. 15세가 되던 해에 부친상을 당하였고, 어머니를 봉양하며 백형(伯兄) 박정(朴禎)에게 수학하였다.

그는 태어날 적부터 정신과 기운이 빼어나게 맑고 보통 아이들과 달라 기억력이 매우 뛰어났으며, 조금 장성해서는 스스로 학문에 힘써 경전과 역사에 널리 통달하였고, 특히 글 짓는 솜씨가 날로 발전하였다고 한다.²⁾ 18세 때인 1491년에 창평 현령(昌平縣令) 유종한(柳宗漢)의 딸과 혼인하였다. 1496년, 23세의 나이로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1501년에 정시 을과에 급제하여 교서관 정자(校書館正字)에 제수되었다. 그 후 승문원 교검(承文院校檢), 시강원 사서(侍講院司書), 병조 좌랑(兵曹佐郎) 등을 두루 지냈다.³⁾

1506년(연산군 12) 가을에 전라도 도사(全羅道都事)가 되었을 때 연산군의 폐인(嬖人)의 아버지인 우부리(牛夫里)를 장살(杖殺)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우부리는 당시 딸의 권세를 믿고서 횡포를 부려 남의 부녀와 전원을 빼앗기까지 하였다. 조정과 재야에서 모두 근심하였지만, 누구도 나서서 그의 죄를 논하지 못하였다. 박상은 이 일로 인하여 위기에 몰렸으나 중종(中宗)의 즉위로 처벌을 모면할 수 있었다.⁴⁾ 11월, 부인 유씨(柳氏)의 상을 당하고, 생원 정세(鄭稅)의 딸과 재혼하였다.

1507년(중종 2) 9월에 사간원 헌납에 제수되었다.⁵⁾ 이때 재상과 훈구세력 대신들이 반정(反正)의 공으로 고위직을 독점하자, 공신 책봉의 부당함과 조정 인사 제도의 파행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특히, 종친(宗親)의 중용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훈구대신들의 전횡에 맞서 지속적으로 간쟁함으로써 군주의 부담과 대신들의 반발을 동시에 자초하였다. 사간

2) 朴祥, 『訥齋集』續集 卷1 「訥齋先生行狀」, “生而神氣英爽, 異於常兒. 少孤, 從伯氏學, 強記過人. 稍長, 能自勸學, 博通經史, 爲文詞日進.”

3) 朴祥, 위와 동일, “弘治丙辰歲, 年二十三, 中進士選, 辛酉歲登第, 授校書館正字, 例遷至博士, 拜承文院校檢, 遷侍講院司書, 兵曹佐郎, 乙丑歲, 出爲全羅道都事.”

4) 朴祥, 『訥齋集』續集 卷1 「敘述」, “燕山納羅州牛夫里之女而嬖之, 牛夫里以賤人之子, 恃恩恣橫, 掠人婦女, 奪人田園, 朝野患無有正其罪者. 丙寅秋, 先生以全羅都事, 杖殺于錦城館, (中略) 會中廟反正, 得免慘禍.”

5) 『中宗實錄』 4卷, 2년 9월 1일, “朴祥爲司諫院獻納.”

원에 있는 동안 탄핵을 꺼리지 않았으므로 곳곳하여 강직하다는 명성이 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외직(外職)인 한산 군수(韓山郡守)에 제수되었다. 이에 사헌부에서 대간의 외직 제수는 부당하다고 이조를 탄핵하면서 논란이 이어지니, 박상에게 종묘서 영(宗廟署令)과 소격서 영(昭格署令) 등의 한직을 이어 제수하였다. 박상은 마침내 모친 봉양을 위하여 임피현령(臨陂縣令)을 자청하였고, 이후 고향 광산(光山)으로 돌아와 독서에 전념하였다.⁶⁾

이후,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을 거쳐 교리(校理) 겸 경연시독관(經筵侍讀官),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教) 등을 지냈다. 1512년에 다시 모친 봉양을 위하여 담양 부사(潭陽府使)가 되었다. 이즈음에 임억령(林億齡), 송순(宋純), 정만중(鄭萬鍾) 등이 박상을 찾아와 수학하였다. 그가 42세 되던 해인 1515년(중종 10) 장경왕후(章敬王后)의 승하 이후 순창 군수(淳昌郡守) 김정(金淨)과 함께 단경왕후 신씨(愼氏)의 복위를 요청하고, 훈구대신들의 잘못을 논척하였다가 관직을 삭탈 당하고 전라 남평(南平)으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사면되어 복직되었으나, 의빈부 도사(儀賓府都事), 장악원 첨정(掌樂院僉正) 등을 지냈다. 박상은 자신의 언행이 끝내 정치적 중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음을 자각하면서도, 성리학적 이상을 버리지 않고 고립 속에서의 자율적 실천을 도모하였다.

1521년(중종 16) 충주 목사(忠州牧使)가 되었을 적에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의탁할 데가 없어진 당시의 사림 인사들을 모두 보살피 주었으므로 김세필(金世弼), 이자(李紆), 이연경(李延慶) 등이 모두 박상에게 의지하였으며,⁷⁾ 1526년에는 중시(重試)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문명(文名)과 학덕을 다시금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미 정치적으로 배제된 인물이었던 만큼 승진에는 한계가 있었고, 나주 목사 재직 중에는 병을 이유로 낙향하였다. 1530년(중종 25) 3월에 병이 점점 심해져 4월에 향년 57세의 나이로 별세하였으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박상은 시종일관 절의와 학문을 겸비한 인물로서 훈구세력과 사림의 교체기에 일관된 도학적 삶을 견지한 인물이라 할 만하다. 그의 학문은 경사(經史)에 능하고 문장에 뛰어났으며, 원우(元祐)의 완인(完人)으로 비유되며 지조와 강직함을 구현한 인물로 추앙받았다.⁸⁾ 그의 학덕과 절의는 성현(成俔), 신광한(申光漢), 황정욱(黃廷彧)과 더불어 서거정(徐居正) 이후 ‘사가(四家)’로 불릴 만큼 문장가로서도 높이 평가되었다. 박상의 생애는 관직과 절의, 문학과 도학이 교차하는 조선 중기 사대부의 모범적 삶의 궤적을 제시한다.

현전하는 『눌재집』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간송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들은 크게 목판본과 필사본으로

6) 朴祥, 『訥齋集』續集 卷1 「訥齋先生行狀」, “在諫院一年, 彈論無所避, 蹇然有直名, 執政惡之, 出補韓山郡守, 故事, 侍從臺諫, 銓曹不得擅擬外官. 憲府即日, 舉劾銓曹, 改授先生宗廟署令, 尋徙昭格署 缺, 先生既仕不得志, 又以親老乞外, 得守臨陂縣令.”

7) 朴祥, 『訥齋集』續集 卷1 「敘述」, “公個儻有大志, 北門禍作, 一時士類, 無所依歸, 公悉爲經紀. 故金世弼, 李紆, 李延慶, 俱往依之. 【醒翁識小錄】”

8) 朴祥, 위와 동일, “訥齋於己卯, 有先見遠引之識, 當群奸用事之日, 超然不怵於禍福, 終爲元祐完人. 【李文純退溪集】”; 「訥齋先生集跋」, “訥齋朴先生, 巋然爲己卯完人, 其文章, 尤齋崛瑰奇絕世, 世顧罕覩其全稿.”

나뉜다. 먼저, 목판본은 2종으로 확인된다. 전자는 김수항(金壽恒)이 1676년에 전라감사 이사명(李師命)에게 부탁했던 간행이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인해 중지되었다가, 1694년에 전라감사 최규서(崔奎瑞)가 간행한 판본이다. 이 본은 시(詩) 7권과 행장(行狀) 1권, 합 2책으로 간행되었던 초간본에 놀재의 형 박정(朴禎)과 아우 박우(朴祐), 아들 박민중(朴敏中), 조카 박개(朴漑)의 시문과 묘갈 등을 부집(附集)하여 13권 4책으로 엮고, 김창협(金昌協)의 발문을 붙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후자는 광주 목사 조철영(趙徹永)이 1843년(헌종 9)에 간행한 목판본이다. 이 본에는 본집과 속집에 빠진 저자의 시문을 취합하여 만든 별집과 윤구(尹衢)의 행장과 김정(金淨)의 「청복고비신씨소(請復故妃愼氏疏)」 등의 작품을 수록한 부록이 추가되었다. 권수에는 범례를 비롯하여 전교(傳敎)와 비망기(備忘記)를 수록하여 모두 16권 6책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성균관대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다음으로, 간행 연도 미상의 필사본은 8권 2책(乾·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집 7권과 보유(補遺) 1권이다. 보유 1권에 실린 작품은 속집 4권의 「청송당기(聽松堂記)」에서부터 「염불사중창기(念佛寺重創記)」까지이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세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림 1. 목판본 『놀이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PD3B-1165A)



그림 2. 필사본 『놀이집』,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4203)

3. 『놀이집』의 현대적 활용방안

『놀이집』에는 놀재 박상이 지닌 정치성과 도학성, 그리고 그 속의 감정과 진솔이 충실히 실려 있다. 그는 생애 전반에 걸쳐 굴곡 많은 관직 생활을 영위하였고, 중종 대 조정의 권신 구조 속에서 훈구세력과 사림 사이의 권력 교체기를 온몸으로 겪은 인물이었다. 특히, 신씨(愼氏)의 복위를 청하는 상소를 올린 뒤 유배되었을 때, 그의 시는 단순한 회한이나 절의의 표방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존재 조건과 유학자로서의 도리를 근원적으로 성

찰하고 있다.

절의의 실천에서 비롯된 시대 인식과 자연 속에서 감회를 통한 자아의 성찰, 도의적 교유 속에서 드러나는 문학적 우정은 『눌재집』이 개인 문집의 차원을 넘어 16세기 조선 시가의 주요한 지점이 되도록 한다. 더불어 그의 문장은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절제된 운율과 수사, 그리고 의미의 충실함을 견지하고 있어 절의와 문장을 겸비한 문인의 이상을 구현한 인물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그의 정신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고전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관점으로 재해석되고 조명될 때 비로서 현대적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전이 지닌 가치와 지혜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하는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학술 가치는 높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접근성이 낮은 고전 문헌의 경우에는 현대적 활용을 통해 그 잠재력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 장에서는 『눌재집』을 현대 사회의 교육, 특히 한문교육과 문화콘텐츠, 지역 문화관광 분야 등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현할 수 있는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고전의 현대적 가치 창출과 대중화를 함께 도모하고자 한다.

『눌재집』의 교육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 문화콘텐츠 개발 및 지역 문화관광 활용에 앞서 눌재 박상 관련 문화자원들을 개괄하고자 한다. 박상의 생애와 정신을 담고 있는 이 자원들은 현대적 활용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 건축문화자원으로는 송호영당과 봉산재가 있고, 기록문화자원으로는 『눌재선생집』과 눌재 박상 초상화가 있으며, 비석 또는 시비에는 눌재 박상 행장비와 광주광역시 사직공원에 있는 박상 시비, 박상 묘비 등이 남아있다. 더불어, 기타 시·군 지역 관련 문화자원으로는 순창 강천사의 삼인대(三印臺)와 전남 장성에서 전북 정읍으로 넘어가는 갈재(葛岾)가 있다.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송호영당(松湖影堂)

- 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46번길 46[소촌동 364-1]

- 개설: 눌재(訥齋) 박상(朴祥)과 사암(思庵) 박순(朴淳)의 영정을 모신 사우(祠宇)로 영조 4년(1728)에 충주박씨 후손들이 건립하였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골기와 맞배지붕 구조로, 건물 중앙은 영정 봉안 장소로 사용되고, 좌우에 온돌방을 만들기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였다. 주초는 자연석 덩벙주초이며, 뒤쪽 벽에는 장혀 위에 납도리를 걸쳤고, 전면에는 단청하였다. 창호는 분합문으로 빗살 창살로 되어있고, 포작은 익공식을 따르고 있다. 처마는 겹처마, 담장은 붉은 벽돌, 대문은 평문이다.⁹⁾

㉡ 봉산재(鳳山齋)

-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사동길 93[서창동 38-1]

9)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광주문화대전 「송호영당」; 한국관광공사 여행 정보 「송호영당」

- 개설: 놀재 박상의 재실(齋室)이다. 뒷산의 이름이 봉황산이어서 박상을 봉산거사라 하였으며, 재각의 이름도 여기서 따와 봉산재라 하였다. 봉산재의 본체는 정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한식 기와 팔작지붕 목조 건물이다. 재실 입구에 완절문(完節門)이라는 편액이 있는 솟을대문이 있다. 재실에는 기문이나 재각기는 없고 상량문에 “을미구월초육일(乙未九月初六日)”이라 쓰여 있다. 재실 앞마당에는 굴정(橘亭) 윤구(尹衢)가 쓴 행장비가 세워져 있다.¹⁰⁾



그림 3. 송호영당 전경(한국관광공사)



그림 4. 봉산재(鳳山齋)(항토문화전자대전)

㉞ 『놀이재선생집(訥齋先生集)』

-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48-25 (용봉동, 광주역사민속박물관)
 - 개설: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놀이재집목판각(訥齋集木版刻)』. 1694년[숙종 20년]에 전라도 관찰사 최규서(崔奎瑞)가 간행하였다. 정집(正集)은 박상의 아우 박우(朴祐)가 1547년에 서문을 쓴 것으로 보아 그 무렵 간행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속집(續集)·별집(別集)·부집(附集)·부록(附錄) 등은 김창협(金昌協)이 편집하였다. 권두에 박상의 동생 박우(朴祐)의 서문과 권말에 김창협(金昌協)의 발문이 있다. 16권 6책의 목판본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¹¹⁾

㉟ 놀재 박상 초상화(訥齋 朴祥 肖像畵)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놀재 박상 초상화는 병조좌랑, 사간 원헌납, 상주목사, 나주목사 등을 역임한 조선 전기 사림파 문신이다. 박상 초상화는 오사모에 담홍색 단령을 입은 전신교의좌상으로 15세기 문인 관료 초상화의 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19세기 이후 이모 과정에서 당시의 시대색 및 음영 기법이 추가되었다. 박상 초상화는 조선시대 초상화의 전형적 양식과 시대적 변천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회화사적, 지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된다.¹²⁾

10)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광주문화대전 「봉산재」

11)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광주문화대전 「놀이재집」; 국가유산청 「놀이재집목판각」

12) 국가유산청 「놀이재 박상 초상화(訥齋 朴祥 肖像畵)」

㉔ 눌재 박상 행장비(訥齋 朴祥 行狀碑)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사동길 89 봉산재

- 굴정(橘亭) 윤구(尹衢, 1495~?)가 박상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인 1531년 4월에 두 아들 부사공 박민제와 진사공 박민중의 요청으로 쓴 글이다. 윤구는 윤선도(1587~1671)의 증조부이다. 윤구는 1516년 식년 문과에 급제하여 지제교, 경연 검토관, 춘추관 기사관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이 글은 당시 바로 쓰였기 때문에 박상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는 귀중한 글로 그 의미가 크다. 『눌재선생집(訥齋先生集)』 부록(附錄)에 실려 있다.¹³⁾



그림 5.
눌재집목판각(訥齋集木版刻)(국가유산청)



그림 6. 눌재 박상 초상화(訥齋 朴祥 肖像畵)(국가유산청)



그림 7. 눌재 박상 행장비(訥齋 朴祥 行狀碑)(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그림 8. 박상-눌재 박상 묘비(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13)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눌재 박상 행장비- 訥齋先生集附錄卷第一」

㊤ 순창 삼인대 (淳昌 三印臺)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산 271

- 개설: 1973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1506년(연산군 12) 중종반정 이후 폐위된 왕비 신씨(愼氏)의 복위를 위하여 세 사람이 관인(官印)을 걸고 상소를 올리기로 결의한 곳이다. 이곳에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비각(碑閣)이 있는데, 비각 안에는 높이 157cm, 폭 80cm, 두께 23cm의 삼인대비(三印臺碑)가 세워져 있다. 이 비는 1744년(영조 20) 4월에 세운 것이다. 도암(陶庵) 이재(李穡)가 비문을 짓고, 정암(貞庵) 민우수(閔遇洙)가 비문의 글씨를 썼으며, 지수재(知守齋) 유척기(兪拓基)가 전서(篆書)를 썼다. 연산군의 학정이 극에 이르자 박원종(朴元宗)·성희안(成希顔) 등이 주동이 되어 연산군을 폐출하고 성종의 둘째 왕자이던 진성대군을 추대하여 왕위에 오르게 한 중종반정이 있었다.

이때 반정공신(反正功臣)들은 중종의 비 신씨를 왕비에서 폐위시킬 것을 강요하였다. 이에 중종은 신씨를 폐출하고 장경왕후(章敬王后)를 맞이하였으나, 1515년(중종 10)에 왕비는 별세하였다. 이에 당시 담양 부사 박상(朴祥), 순창 군수 김정(金淨), 무안한감 유옥(柳沃) 등 세 사람이 비밀리에 이곳 강천사 계곡에 모여 폐위된 신씨를 왕비로 복위시키자는 상소를 올리기로 결의하였다. 이때 이들이 소나무 가지에 관인을 걸어 놓고 맹세한 곳이 여기라 하여 삼인대라 부르게 되었으며 삼인대비를 세운 것이다.¹⁴⁾

㊦ 삼남대로 갈재(三南大路 葛岾)

- 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에서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창동에서 전해 내려오는 박상과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연산군이 채홍사(採紅使)를 통해 조선 팔도의 여인들을 데려가던 때, 전남 나주에 살고 있는 우부리라는 사람의 딸이 연산군의 후궁이 되어 총애받았다. 우부리는 자신의 세를 과시하였는데, 각 읍의 수령(守令)은 물론 관찰사까지 위협할 정도였다. 당시 놀재는 관리의 감찰과 규탄을 맡은 관직에 자원하여 신궁 도사로 부임하였는데, 놀재는 부임하자마자 우부리를 잡아 곤장을 때려서 죽게 하였다. 놀재가 왕의 장인을 죽게 한 사실을 자백하고, 한양으로 올라가던 중이었다. 놀재가 입암산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고양이가 한 마리가 놀재의 도포 자락을 잡아끌면서 막아섰다. 놀재는 고양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마침 금부도사(禁府都事)가 놀재에게 줄 사약을 가지고 내려오던 도중이었는데, 길이 엇갈리게 되었다. 놀재는 고양이가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였다. 중종 반정(反正) 이후, 놀재는 자신을 구해 준 고양이를 위해 하남면 오산리에 있는 논 수십 마지기를 내놓았고, 정양사에서 그 곡식을 거둬들였다. 이후 묘답(猫畓)은 광복 이후로 국유지로 편입

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순창 삼인대 (淳昌 三印臺)」; 『놀이재집』에 이재(李穡)의 「삼인대에 대한 비명 병서(三印臺碑銘 并序)」가 수록되어 있다.

되었다.¹⁵⁾

현재 ‘갈재길’이라는 이름으로, 백양사역에서 입암면사무소까지 약 11.2km 도보 여행 코스로 만들어졌다. 이 코스는 조선시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소통하며, 아름다운 옛 전설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며, 삼남대로(전남 해남~서울) 중에서 옛길의 흔적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으로 전남과 전북을 잇던 소통의 길이란 상징성이 있는 탐방로이다.¹⁶⁾



그림 9. 순창 삼인대(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림 10. 장성새재길 내내 만날 수 있는 계곡(파이낸셜뉴스)

1) 교육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

박상(朴祥)의 문학과 생애는 오늘날의 교육 현장에서 인문교육 및 윤리교육의 주요 자료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다. 박상은 조선 전기 사림 정치의 중심에서 ‘의리와 절의’라는 유학의 핵심 윤리를 실천한 인물이며, 문집 『눌재집』에는 그의 문학적 성취와 도덕적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본 장에서는 『눌재집』을 중심으로 박상의 인물상과 문학 작품이 현대 중·고등 한문과 교육, 더 나아가 대학의 한문교육과 교양교육에서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를 살펴본다.

한편, 박상의 시는 주로 전원과 산수(山水), 화훼, 조수(鳥獸) 등 자연과 경물을 소재로 삼아 명리와 시비를 떠나 한거자락(閑居自樂) 하는 도잠(陶潛) 시의 의취(意趣)가 짙게 느껴진다. 이러한 시풍은 현대인의 자연 회귀 욕구와 ‘힐링’ 추세에 부합하는 콘텐츠 소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중에서 『눌재집』은 박상의 문학 세계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방대한 분량과 다양한 장르의 시와 산문을 수록하고 있어 중·고등학교 한문과 및 대학의 한문교육과 학습 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다. 중·고등학교 한문과 교육은 한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접근을 위해 먼저 한시 작품을 감상한 뒤, 시를 분석하고 음미하는 감각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15)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박눌재와 고양이」; 『눌재선생집』 부록 권 제2 「서술(敍述)」에 이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6) 두루누리 여행 자료실 「전남 장성군 갈재길」 소개

한다. 그의 시를 분석하며 고전 문학의 형식과 내용적 특징을 이해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오늘날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방안을 공유하는 등 창작 활동을 연계할 수 있다. 다음은 박상이 금산 지역을 유람하면서 읊은 즉흥시로, 조선 전기의 사림 문인이 자연 속에서 체득한 심미적 정서를 압축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금산 온 고장이 맑고도 깊숙해	一區淸更邃
길 가는 말까지 따라서 느려지네.	征鞭故迺遲
병풍 같은 산봉우리들이 가려서 하늘이 작게 보이고	嶂束看天小
구름이 막고 있어 낮인 줄 알지 못하네.	雲封爽晝全
관가에서는 조세로 잣과 꿀을 거두고	公租收檜蜜
마을에서는 산밭을 같이 갈아서 먹고사네.	鄉井共山田
무릉도원에라도 들어온 듯해	似入桃花境
먼지와 진흙탕 길 넓고도 풀 무성하네.	塵漕路闊千 ¹⁷⁾

이 시는 오언율시의 형식을 따르고 있으며, 자유로운 산수 묘사와 유유자적한 정서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시의 공간은 금주(錦州)이며, 박상이 유람하던 중 마치 신선의 세계, 혹은 무릉도원에 들어선 듯한 분위기를 느끼며 이를 읊고 있다. 제1~2구에서 시인은 외부와 단절된 듯한 고요한 공간감을 형상화한다. 이 구절은 풍경 묘사를 넘어 인간 세속과는 구별된 이상향에 발을 들인 이방인의 감흥을 드러낸다. 이어지는 제3~4구에서는 세밀하고 섬세한 자연 묘사가 이루어진다. 박상은 실제로 험준한 산골을 지나며 체험한 시각적 정경을 바탕으로, 안개 낀 산길에서 마주한 비좁은 하늘과 한낮인데도 어두운 길을 걷는 감정을 섬세하게 포착하고 있다. 시어 ‘장속(嶂束)’은 좁고 폐쇄적인 자연환경을 묘사하고 있는 듯하지만 동시에 내면의 집중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하늘이 작게 보인다(看天小)’는 구절은 인간의 시야와 존재의 미미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제5~6구에서는 자연 속 공동체의 생활상을 포착한다. 금산 지역의 특산물로 알려진 잣(檜)과 꿀(蜜)을 조세로 거두는 모습을 언급하며, 동시에 주민들이 산밭을 공동으로 경작하는 자급적 공동체의 삶을 묘사한다. 박상은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그 삶에 동화된 한 사람의 관점에서 이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으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윤리를 엿볼 수 있다. 마지막 두 구절은 시 전체의 정조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도화경(桃花境)’은 고전에서 흔히 이상향이나 무릉도원을 의미하며, 현실에서 도달할 수 없는 궁극의 정서적 평온과 자연의 질서를 상징한다. 그러나 동시에 마지막 구절에서 박상은 ‘먼지와 진흙탕 길이 넓고도 풀이 무성하네.’라고 하여, 그 도화경 역시 현실의 공간이며, 그 속에는 흙먼지와 고단함도 함께 있음을 암시한다. 이처럼 시인은 현실과 이상을 교차시키면서도 그

17) 『놀이선생집(訥齋先生集)』 권3 「금주에서 읊다(錦州口號)」

양자를 모두 껴안는 유연하고도 풍부한 시적 자아를 제시한다.

위 작품은 교육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공간 이미지와 정서의 연결을 통해 시각적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 둘째, 공동체와 생태 윤리에 대한 시적 사유가 담겨 있어 오늘날의 생태 전환교육¹⁸⁾과 연결해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무릉도원의 환상성과 현실적 고단함이 공존하는 구조는 현대 사회의 이중적 감정 구조를 이해하는 데도 유의미한 재료가 된다. 즉, 자연 속 인간 삶의 균형과 이상향의 구조,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내포한 고전 한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심미적 감성’과 ‘인성 역량’ 등 교과 역량 함양을 목표로 하며, 『눌재집』 소재 한시는 이러한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소재가 된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 한문과 「한문 고전 읽기」 교과에 『눌재집』에 수록된 「금주에서 읊다(錦州口號)」 작품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교수·학습 지도안을 설계하였다. 본 지도안은 고등학생¹⁹⁾을 대상으로 총 3차시, 블록 타임제를 적용하여 설계하였으며, 한시를 소재로 한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과거의 자연시를 읽고 현대 사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직접 모색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총 3차시 중 2, 3차시 블록타임제 교수·학습 지도안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본 교수·학습 지도안의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항목을 설정하였다. 첫째, 글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를 이해하여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성을 함양한다. 이 성취 기준은 한시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를 본보기 삼아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제5~6구는 자연 자원을 조화롭게 활용하며 조세와 자급을 실현하는 마을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공동의 삶, 협력, 검소함이라는 선인들의 삶의 지혜를 상징한다. 제7~8구의 이상향에 대한 작자의 태도도 이색적이다. 이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세계에 대한 겸손하고 유연한 시각을 전달하면서 이상을 꿈꾸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태도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통합적 사고로 연결된다. 둘째, 자연과 생태의 가치를 알고 상생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 성취 기준은 자연과 생태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꾸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갖추게 하려고 설정하였다. 작자는 산중 자연에 대한 감탄과 겸손의 자세를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높은 산이 하늘을 가리고, 낮에도 어둡다는 묘사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이 자연 일부임을 인식하게 한다.

18) 기후변화와 환경재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모든 수준에서 생태적 전환을 추진하는 교육을 말한다.

19) 고등학생: 「한문 고전 읽기」는 학교마다 학습하는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학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고등학생’으로만 통칭하였다.

이 수업은 박상의 한시 「금주구호」를 분석함으로써 조선시대 선인들의 공동체 삶의 지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성과 한시 감상을 통한 심미적 감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습자는 한시의 형식적 특징, 시어 분석과 작품 감상을 통해 한시 작품을 심도 있게 이해하였으며, 본 작품을 통해 심미적 감성 능력을 기른다.

대학의 한문교육과 및 한문학 관련 학과에서는 『눌재집』을 활용하여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예컨대, 한문 독해 및 번역 심화를 위해 『눌재집』에 수록된 다양한 장르의 시가와 산문은 한문 문장의 정확한 분석 및 독해력 제고에 이바지한다. 특히, 고사의 풍부한 인용과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은 심층적인 번역 및 주석 작업을 통해 학생들의 한문 독해 능력을 고취할 수 있다. 『눌재집』의 특정 작품을 선정하여 원문 강독, 번역 실습, 주석 작성 등의 과목을 개설하거나 여타 과목의 보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성 교육과 공직자 윤리교육의 소재로 활용할 수도 있다. 눌재 박상의 생애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사건은 단경왕후 신씨 복위 상소 사건과 우부리 장살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조선 전기 부패 권력과 불의에 대한 그의 강직한 태도와 양심적 실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단경왕후 복위 상소 사건은 박상이 중종에게 일찍 폐위된 왕비의 복위를 간절히 청원하며 정치적 위험을 무릅쓴 공론(公論)의 행위였고, 우부리 사건은 연산군 시기 지방의 횡포한 천민 권력자를 법으로 단죄하며 공적 정의를 실현한 사례였다.

눌재 박상의 강직한 관료 생활은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공직자 윤리를 가르치는 데 효과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단경왕후 신씨 복위 상소 사건과 우부리 장살 사건에서 드러나는 그의 불의에 대한 저항 정신과 양심, 신념에 비추어 옳지 못한 일에 대한 타협 거부는 ‘절의’와 ‘의리’의 중요성을 부각하게 시킨다. 백성을 위한 구휼에 힘썼던 그의 ‘애민(愛民)’ 사상과 거듭 청백리(淸白吏)로 발탁된 청렴한 풍성은 인성 교육의 핵심 주제로 다룰 수 있다.

이러한 박상의 행동은 오늘날 공직자 윤리나 시민의식 교육에 있어 핵심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특히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용기, 그리고 청렴결백한 그의 관료 생활은 고전 속 인물의 행동을 통해 현재의 사회 윤리를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또한 『눌재집』에 실린 박상의 제문, 상소문, 자찬문 등을 활용하면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설정한 뒤 학습자에게 다양한 관점의 토론을 유도하는 윤리 교육적 실천도 가능하다. 이 밖에, 교육 자료로서의 『눌재집』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활동 및 연계 학습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표 2〉 『놀이박상』 교육 활용 주요 작품 및 연계 학습 내용

구분	작품/내용	교육적 가치	연계 학습 내용	활동 아이디어
인성/가치 교육	단경왕후 신씨 복위 상소문	불의에 대한 저항 정신, 충절(忠節), 공직자의 윤리, 대의명분	- 역사: 중종반정, 기묘사화, 사람과 훈구세력의 대립 이해 - 윤리: 공직자 윤리, 정의 실현, 소신 있는 삶의 태도 토론	- 역할극: 상소문 낭독 및 토론 - 논술: '불의에 대한 저항, 개인의 책임' 주제 글 쓰기
중·고등 한문과 /한국산문 교육	오언고시, 칠언 고시, 율시 등 시가 작품	고전 시가의 형식 및 내용 이해, 문학적 감수성 함양, 한자어/고사의 심층 이해	- 문학: 시 형식 분석, 자연관, 인생관 탐구 - 언어: 고사성어 및 난해한 한자어 해설, 시어의 아름다움 탐구	- 시 창작 워크숍: 자연을 소재로 한 시 쓰기 - 고전 문학 독서 토론: 시에 담긴 철학적 의미 논의
산문 작품 (서, 기, 발, 제문 등)	고전 산문의 다양한 장르	- 문학: 산문 장르별 특징 비교 분석 - 역사: 당시 사회상, 지식인의 역할	- 산문 필사 및 요약 발표 - 주제별 토론: '지식인의 역할과 책임' 등	
지속가능교육 /융합 교육	자연 친화적 시가 작품 전 반(전원, 산수, 화훼, 초목 등 소재)	동양의 자연관, 도가/불가의 사상 이해, 현대인의 힐링과 지속 가능한 삶 모색	- 철학: 자연과 인간의 관계, 안빈낙도 사상 - 환경: 지속 가능한 삶, 자연 보호 의식 - 예술: 자연을 모티브로 한 예술 작품 감상 및 창작	- 자연 속 문학 기행: 시에 등장하는 장소 방문 및 감상 - 명상 및 요가 프로그램: 시 낭독과 함께하는 힐링
가족 및 주변 인물 시문(부집)	조선시대 지식인 가문의 문학적 교류, 인간적인 면모 이해. 예) 조카 박순(朴淳)	역사: 당시 지식인 사회의 가족 및 문인 고유문화 사회: 가족의 역할, 인간관계의 중요성	- 가계도 만들기 및 인물 관계 분석 - 가족 문학 콘서트: 가족 시문 낭독 및 소개 - 인물 다큐멘터리/웹드라마 기획: 박상과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	

2) 문화콘텐츠 자원으로서의 『놀이박상』

문화콘텐츠는 문화산업이나 문화 주체의 활동을 통해 생겨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나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의 방송 콘텐츠와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의 공연, 컴퓨터 게임, 모바일 게임 등이 포함된다. 고전 문학은 현대 문화콘텐츠의 풍부한 원천 서사로서 그 위상을 발휘한다. 고전이 시공간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 콘텐츠로 자주 변용되는 까닭은 작품에 담긴 의미와 사상이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옛이야기인 고전과 21세기 새로운 매체인 웹툰은 멀리 떨어진 사이 같지만, 풍부한 상상력과 능동적인 재해석을 통해 과거와 현대의 간극을 잇고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성공적인 고전 기반 콘텐츠 사례로는 웹툰 「신과 함께」가 있다(이 웹툰은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 「신과 함께-인과 연」 시리즈로 개봉되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제주도 큰곳의

‘차사본풀이’²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현대적인 저승세계를 보여주어 이야기를 확장하고, 저승차사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킨 이후 다양한 콘텐츠 속 저승차사 형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사료로 쓰였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의 누락분 15일을 모티브로 삼아 상상력을 발휘한 픽션 영화이다. 15일의 누락된 기록은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빈틈’을 제공하였으며, 영화는 이 빈틈을 통해 가상의 인물(하선)을 투입하여 이야기를 확장했다. 광해군이라는 실존 인물의 역사적 평가와 함께 그가 겪었을 법한 내면적 갈등과 이상적인 지도력에 관한 질문을 던지며 현대인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왕이 아닌 천민 출신이 진정한 왕의 덕목을 보여준다는 역설적인 설정은 신분과 상관없이 인간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게 했다.

반면에, 영화 「자산어보(茲山魚譜)」는 조선 후기 실학자인 정약전(丁若銓)이 흑산도 유배 시절 집필한 어류 관련 서적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다. 저자 정약전의 학문적 열정과 시대적 고뇌를 심도 있게 다룬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어부 창대와와의 교류를 통해 학문과 실용의 조화, 지식인의 역할, 신분을 뛰어넘은 인간적 유대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탐구하였다. 특히, 흑백 화면의 미학적인 연출과 함께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행위를 통해 삶의 지혜를 얻는 과정은 현대인의 성찰과 힐링에 대한 욕구와 맞닿아 깊은 여운을 남긴 작품으로 회자되고 있다.

눌재 박상과 관련한 문화자원들은 조선 전기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서 강직한 선비 정신과 깊이 있는 사유를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그의 삶과 문학에는 현대 문화콘텐츠로 재탄생할 수 있는 풍부한 서사적 요소와 보편적 가치가 내재하여 있다. 우선, 원작의 핵심 주제와 인물,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현대인의 공감과 흥미를 유발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박상이 단경왕 후 신씨 복위를 상소하며 보여준 ‘절의’와 ‘대의명분 중시 사상’은 현대 사회의 ‘소신 있는 삶’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용기’와 같은 가치로 재해석하여, 개인의 신념이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산군 시기 우부리 장살 사건에서 드러나는 그의 강직함과 공적 정의 실현 의지는 법정 드라마나 범죄 스릴러의 핵심 서사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 서로 다른 이야기의 유기적 결합이나 하교(fiction)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고전의 서사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미를 선사하여 대중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웹툰,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춰 콘텐츠를 기획하는 OSMU(One Source Multi Use)이다. 위에서 살펴본 웹툰 「신과함께」가 이 상황에 해당한다.

20) 차사본풀이: 제주도 지방 무가(巫歌)의 하나. 현세의 강림 도령이 용감하게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잡아다가 죄의 심판을 하게 하므로 그 용감성을 아껴 차사(差使)로 삼았다는 내용이다.



그림 12. 웹툰 「신과 함께」



그림 13. 광해, 왕이 된 남자



그림 14. 자산어보

㉠ 웹툰/애니메이션 개발 가능성

‘놀이 박상과 고양이 전설’은 판타지 또는 모험물 요소를 가미하여, 고양이 캐릭터를 박상의 신비한 조력자로 설정하고 기상천외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웹툰으로 개발될 수 있다. 한국 웹툰 시장은 2022년 매출액 1.8조 원에 달하며,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져 창작자 풀(Pool)이 다양하고 양질의 웹툰이 많이 탄생했다. 강풀 작가의 「순정 만화」는 최초의 장편 스토리 웹툰으로 기념비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며, 「미생」과 「킹덤」 등 웹툰 원작 드라마의 성공은 웹툰의 영상화 가능성과 OSMU(One Source Multi Use)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웹툰은 ‘놀이 박상과 고양이 전설’과 같은 판타지적 요소를 시각적으로 자유롭게 구현하며, 박상의 강직한 캐릭터를 현대적 영웅 서사로 재해석하기에 가장 용이한 매체이다.

웹툰은 그림과 텍스트의 결합으로 시각적 표현이 매우 자유로우며, 실사 매체에 비해 판타지적 요소를 구현하는 데 제작비나 기술적 제약이 적다. ‘고양이 전설’은 역사적 인물 서사에 신비롭고 비현실적인 요소가 결합된 독특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고양이의 의인화된 행동이나 신비로운 분위기를 극대화하여 표현할 필요가 있다. 웹툰은 고양이의 신비로운 능력이나 박상의 위기 상황을 극적으로 연출하는 데 매우 유리하다. 작가의 상상력을 시각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 박상의 강직한 선비 정신을 현대 사회의 ‘정의로운 영웅’ 이미지로 재해석하여 젊은 독자층에 어필할 수 있다. 또한, 웹툰의 스크롤 방식은 서사의 긴장감을 조절하고 독자의 몰입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어서, 박상의 고뇌와 결단을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다.²¹⁾

21) 기존의 『놀이잡』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사례로는 광주시에서 제작한 「놀이 박상과 고양이 전설」 웹툰 및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제작한 영상 「고양이 덕분에 목숨을 건진 조선의 문관」 등이 있으며, 이들은 전설을 친근하게 전달하고 지역 고전 인물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들 콘텐츠는 대체로 희화적 연출, 단편적 구성, 상징성 약화, 인물의 내면성 결여, 역사적 맥락의 생략 등의 한계를 드러내며, 박상이 지닌 ‘절의와 정의’의 핵심 가치와 고전 인물로서의 품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콘텐츠의 이러한 한계를 검토하고, 고전 인물 서사의 역사성과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이 전설은 가족 친화적인 판타지 모험물로, 고양이를 의인화된 캐릭터로 등장시켜 박상과 함께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의 애니메이션으로도 개발할 수 있다. 한국 애니메이션은 1967년 신동헌 감독의 <홍길동>을 시작으로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을 열었으나, 이후 OEM(주문자 생산 방식) 제작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창작 애니메이션의 전성기가 시작되었고, 기획 창작 중심의 작품들이 속속 등장하며 「마당을 나온 암탉」(2011), 「파닥파닥」(2012), 「우리별 일호와 얼룩소」(2014) 등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성공 사례들이 나타났다.

애니메이션은 정의와 강직함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구현하여 어린 관객들에게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닌다. 복잡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단순화하고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능력은 교육적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높인다. 특히 ‘고양이 전설’은 애니메이션의 창의적 자유를 통해 실사 매체의 제약을 넘어선 상상력 넘치는 스토리텔링을 가능하게 한다.

㉞ 드라마 개발 가능성

박상의 ‘신비복위상소(愼妃復位上疏)’는 중종반정 이후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과 훈구파-사림파 간의 첨예한 대립, 그리고 왕비 신씨의 비극적인 삶을 중심으로 한 목직한 정치 사극으로 제작될 수 있다. ‘우부리 사건’은 권력형 비리에 맞서는 정의로운 관료의 이야기로, 현대적 시사점을 담은 시대극 또는 수사극 형태로 변주가 가능하다. 박상의 학문적 교유와 호남 사림 형성 과정은 지성인들의 성장과 갈등을 다룬 청춘 사극 형태로도 접근할 수 있다.

한국 사극 드라마는 2000년대 이후 「주몽」, 「대장금」, 「허준」 등 영웅의 성장과 성공을 다루는 서사, 숙명의 라이벌 구도와 위기 극복 플롯을 통해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최근에는 「옷소매 붉은 끝동」, 「슈룹」 등 퓨전 사극이 등장하여 역사의 빈 곳을 공략하고 현대적 요소를 가미하며 대중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해외 시청자들은 한국 사극의 풍경, 한국



그림 15. 놀재 박상과 고양이 전설 웹툰(1)



그림 16. 놀재 박상과 고양이 전설 웹툰(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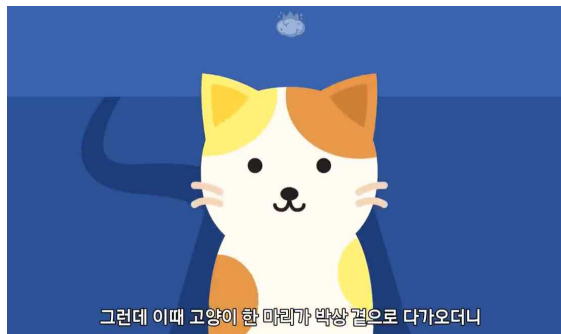


그림 17. 「고양이 덕분에 목숨을 건진 조선의 문관」 유튜브 영상

고유의 아름다움을 담은 의상, 소품 등 독특한 동양적 세계관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이는 해외 흥행의 비결로 작용한다.

퓨전 사극의 형태는 역사적 사실과 상상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박상의 이야기를 더욱 접근성 있고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 중종반정 이후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과 박상의 개인적 고뇌는 깊이 있는 인물 발전을 위한 풍부한 소재를 제공하며, 이는 역사적 맥락과 공감 가능한 인간적 드라마를 동시에 추구하는 현대 시청자들에게 공명할 수 있는 미묘한 인물 묘사를 가능하게 한다. 한국 전통문화의 시각적 풍요로움은 글로벌 관객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웹툰은 ‘고양이 전설’과 같은 판타지 요소를 시각적으로 자유롭게 구현하며 박상을 현대적 영웅으로 재해석하기에 적합하며, 드라마는 복잡한 정치적 배경과 인물 간의 갈등을 심도 있게 다루는 퓨전 사극으로 확장될 수 있다. 애니메이션은 정의와 같은 추상적 가치를 시각화하고 역사적 사건을 교육적으로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향후 박상 서사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융합형 스토리텔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고양이 전설’과 같은 신비로운 요소는 콘텐츠의 독창성을 높이는 강력한 장치가 될 것이다. 둘째, 웹툰,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다매체 OSMU 전략을 수립하여 콘텐츠의 파급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박상의 강직함, 정의로움, 연대 정신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동시대 관객들에게 공감과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넷째,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활용하여 글로벌시장을 겨냥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가치와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균형 있게 결합하여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역사적 이해를 높이는 콘텐츠를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놀재 박상의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을 넘어 현대 대중에게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 문화관광과 『놀이집』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현시대에 지역 경제를 견인하고 정체성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고전 및 역사 인물 테마 관광은 방문객에게 교육적 가치와 함께 깊이 있는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 고유의 매력을 발산하는 데 효과적이다. 놀재 박상의 풍부한 문화자원은 그의 출생지인 광주를 중심으로 순창, 나주 등 호남지역 전반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하여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크다. 이는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전 및 역사 인물 테마 관광은 과거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현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방문객에게 깊이 있는 역사적 서사를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유적지 방문을 넘어, 인물의 삶과 정신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몰입형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관광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역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순기능을 지닌다. 복잡하고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전통문화를 디지털 콘텐츠와 결합하여 쉽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축제 및 이벤트는 공동체의 자부심과 유대감을 높이고, 해당 지역의 강렬한 이미지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 관광 수입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전통문화 콘텐츠는 한류(韓流)의 흐름 속에서 국내외 대중의 관심을 끌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MZ세대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전통문화가 현대 대중문화와 조화를 이룰 때 세계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남원의 광한루원 춘향전 테마 관광이 대표적이다. 광한루원은 본래 조선 중기의 뛰어난 관아 원림으로서 독자적인 역사와 미적 가치를 지녔으나, ‘춘향전’ 스토리와의 연계를 통해 대중적 인기를 얻으며 핵심 관광지로 부상했다. 대중에게 익숙한 고전 서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강력한 스토리텔링을 구축한 것이 성공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춘향가’가 판소리 다섯 마당 중 예술성이 가장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라는 점은 문학적 깊이를 더한다. 문학적 공간 조성 및 체험 행사를 운영하는 인재의 만해마을도 있다. 이곳은 시인이자 불교의 대선사, 민족 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사상과 문학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조성된 수련장이다. 만해 문학박물관, 문인의 집(창작 집필실), 만해 학교, 심우장, 서원 보전, 님의 침묵 광장 및 산책로 등 폭넓은 방문객층을 수용한다. 특히 문인 창작 집필실은 문예 진흥원에서 숙식비를 지원하며 문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 만해 한용운이라는 역사적 인물의 문학적, 사상적 유산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휴식이 어우러지는 복합 공간을 조성한 것이 성공의 비결로 평가된다.

박상은 청백리(淸白吏)에 녹선될 정도로 강직하고 청렴한 품성을 지녔으며, 성현, 신광한 등과 함께 서거정 이후 사가(四家)로 칭송받는 문장가였다. 그의 학문은 성리학적 도학(道學)을 바탕으로 의리 실천을 강조했으며, 이는 호남 사림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놀재 박상과 문화자원 심층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박상은 청백리이자 호남 사림의 원조로 불릴 만큼 강직한 절의의 상징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비 복위 장소’와 ‘우부리 사건’은 그의 불의에 대한 저항 정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며, 특히 ‘고양이 전설’은 그의 삶에 운명적이고 신비로운 요소를 더해 대중적 흥미를 유발한다.

동시에 『놀이집』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뛰어난 문학적 역량과 자연을 소재로 한 시풍은 그의 또 다른 매력이다. 이처럼 박상의 유산은 도덕적 가치, 극적인 서사, 예술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다양한 층위의 방문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따라서 놀재 박상 테마 관광은 그의 절의 정신을 강조하는 역사적 코스와 함께, 그의 시문

이 담긴 서정적인 문학 코스, 그리고 고양이 전설과 같은 흥미로운 일화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 코스를 병행하여 다각적인 매력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박상 관련 문화유산은 광주(송호영당, 봉산재, 무등산 유람시), 나주(우부리 사건), 순창(삼인대) 등 호남지역 내에 지리적으로 인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는 단일 지역 방문을 넘어, 광주를 거점으로 하는 ‘호남 문학·절의 투어’와 같은 광역 관광 코스 개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각 지역의 유산들이 박상의 생애와 주요 사건들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방문객에게 응집력 있는 역사적 흐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연계성을 활용하여 놀이 박상 테마 관광은 광주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나주, 순창 등 인접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놀이 박상 문학·역사 벨트를 구축하여 광역 관광 상품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문학 기행 코스 개발

놀이 박상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 한 문학 기행 코스는 그의 삶과 문학적 성취를 현장 중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유의미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이다. 박상의 주요 활동 지역인 광주, 순창, 나주를 하나의 서사적 흐름으로 연결하여, ‘절의와 시적 성찰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구성할 수 있다. 광주에서는 송호영당과 봉산재, 무등산 유람 등을 중심으로 박상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면모를 조명하고, 나주에서는 우부리 사건의 현장을 스토리텔링 콘텐츠와 접목하여 역사적 긴장감을 구성한다. 순창의 삼인대는 신비 복위 장소의 결정적 배경지로서, 박상의 절의 정신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소가 된다. 이 기행 코스는 박상의 사상과 감정, 시대적 맥락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몰입형 서사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첫째 날은 광주에서 ‘호남 사림 정신의 발원지’를 탐방한다. 먼저 월봉서원을 방문하여 박상의 학문적 업적과 호남 사림 정신의 계승을 배우고, 유생 체험(예절, 다도)이나 학술 강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어서 송호영당에서는 박상과 그의 조카 박순의 영정을 관람하고 『놀이집』 목판을 통해 호남 사림의 원조로서 박상의 위상을 확인하며, 인근 용아(龍兒) 박용철(朴龍喆) 생가와 연계하여 문학적 계보를 탐방한다. 마지막으로 봉산재 및 박상 묘소를 찾아 박상의 삶의 마지막 흔적을 더듬고 자연 속에서 사색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그의 삶의 마무리와 자연과의 조화를 느껴볼 수 있다.

둘째 날은 나주로 이동하여 ‘불의에 맞선 강직함의 현장’을 경험한다. 나주 금성관 또는 관련 유적지에서는 우부리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을 배경으로 박상의 강직한 성품과 불의에 대한 저항 의지를 부각하는 스토리텔링을 체험한다. 이어서 장성 갈재 및 백양사를 방문하여 ‘고양이 전설’의 배경이 된 운명적인 만남의 장소를 탐방한다. 이곳에서는 고양이 캐릭터 포토존을 설치하거나 전설 해설을 통해 박상의 위기 극복과 기적의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날은 순창에서 ‘대의를 위한 결의의 장’을 탐방한다. 순창 삼인대는 박상, 김정, 유

옥 세 선비가 ‘신비 복위 상소’를 결의하며 죽음을 각오했던 역사적인 장소로, 이곳에서 삼인대 기념행사 재현 퍼포먼스에 참여하거나 역사적 의미를 학습하며 선비들의 충절을 기릴 수 있다. 이후 강천사 주변 산책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명상하고 휴식을 취하며 자연과의 교감과 평화로운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눌재집』 수록 유산시(遊山詩)를 활용한 등산로 현판 제작 방안

박상의 시문 중 무등산을 배경으로 한 유산시는 자연을 통한 성찰과 심미적 체험이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이를 활용한 등산로 콘텐츠화는 방문객에게 문학적 몰입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박상은 자연을 소재로 명리(名利)와 시비(是非)를 떠나 한가롭게 즐기는 시풍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그의 유산시를 활용하여 무등산 등산객에게 문학적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 방안의 핵심 목표는 등산객이 자연 속에서 박상의 문학 세계를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데 있다. 세부 방안으로, 현판 디자인은 무등산의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재료 예를 들면, 목재나 자연석 및 디자인을 사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눌재집』에 수록된 박상의 유산시 중 무등산의 풍경이나 그의 사색이 담긴 시구를 선정하여 한글과 한자로 병기한다. 특히, 박상의 「유서석산운(遊瑞石山韻)」은 무등산의 서석대를 유람하며 지은 시로,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무등산의 웅장한 기상을 잘 담아내고 있다.

옛날 영평으로 귀양 갔을 때	昔年曾謫永平官
무등산 구름 헤치고 올랐었네	無等山雲借登攀
염불암에서 서로 해후하고	念佛庵中成邂逅
천왕봉 위에서 함께 거닐었지	天王峯上與盤桓
남쪽의 오십 고을 탄환처럼 작았고	南州五十彈丸小
북쪽 궁궐 삼천리는 지척이라	北闕三千咫尺間
날로 병들어 깊이 문 닫고 있으니	衰病日加深閉戶
언제나 다시 층층 산을 오르려나	再遊那得到層巒 ²²⁾

이 작품은 과거의 유배 생활과 무등산 등반의 추억, 천왕봉에서 바라본 세상의 광활함과 정치적 중심지에 대한 상념, 그리고 노년에 다시 오르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시는 방문객이 시를 통해 박상의 삶의 궤적과 내면세계를 깊이 이해하고, 무등산의 아름다움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현판의 위치는 서석대, 입석대 등 무등산의 주요 경관 지점 및 등산객이 쉬어갈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여 자연경관과 문학적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방문객의 몰입도

22) 『눌재 선생 속집(訥齋先生續集)』 제3권 「서석산을 유람하다」라는 시를 정만중에게 주다(遊瑞石山韻 贈鄭萬鍾)

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현판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스마트폰으로 스캔 시, 해당 시의 전문, 현대어 번역, 전문 성우의 시 낭송 오디오 파일, 관련 역사적 배경 설명, 박상의 생애 정보 등으로 연결되는 모바일 웹페이지 또는 앱을 제공하는 디지털 연계를 추진한다. 이는 고전 문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등산객에게 문학적, 역사적, 교육적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여 단순한 자연경관 감상을 넘어선 깊이 있는 문화 체험을 가능하게 하며, 박상의 문학적 유산을 대중에게 친근하게 알리는 매개체가 되어 무등산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㉔ 지역 특화 상품 기획 방안

놀이 박상 관련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상품을 기획함으로써, 방문객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특히 순창 삼인대에서 진행되는 삼인 문화 기념행사를 더욱 대중적이고 몰입감 있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순창 삼인대는 박상, 김정, 유옥 세 선비가 폐위된 왕비 신씨의 복위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상소를 결의한 역사적인 장소이다. 매년 이곳에서 삼인 문화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²³⁾ 이를 더욱 극적이고 참여적인 퍼포먼스로 발전시켜 관광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 퍼포먼스의 컨셉은 「세 선비의 맹세: 삼인대의 퍼포먼스」로, 역사적 현장감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세부 방안으로는 현재 연례행사를 넘어 분기별 또는 월별 정기 공연으로 확대하여 강천사 삼인대 현지에서 진행함으로써 현장감을 극대화한다. 스토리텔링을 강화하기 위해 신비 복위 장소의 배경, 순창군수 총암 김정, 담양부사 놀재 박상, 무안현감 석헌 유옥 세 인물의 고뇌와 결의, 그리고 상소 이후의 파장 등을 극적인 스토리로 구성한다. 전문 연극인 및 지역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공연의 질과 지역성을 높

23) 2024년도 9월 순창문화원 주최 강천산 군립공원 내에 있는 삼인대(三印臺, 전북 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제27호)에서 '제28회 삼인 문화 기념행사'를 개최된 바 있다. 행사는 제1부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옥천고를 대취타(왕과 왕비 행렬), 시조, 민요 공연 등이 진행되면서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그림 18. 2024년도 제28회 삼인 문화 기념행사 개최

이며, 특히 상소문 낭독과 관인(官印)을 소나무에 거는 맹세 장면을 핵심적으로 재현하여 역사적 현장감을 부여한다.

또한, 관객이 직접 상소문 낭독에 참여하거나 전통 복식 체험, 전통 악기 연주(대취타 등) 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방문객의 몰입도를 높인다. 디지털 연출을 위해 프로젝션 맵핑, 조명, 음향 효과 등을 활용하여 역사적 장면을 더욱 생동감 있게 재현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선 몰입형 문화콘텐츠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㉔ 기념품 및 체험 행사 다양화

방문객에게 문화적 만족감을 제공하고, 구매를 통해 지역 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박상 관련 콘텐츠의 지속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기념품 및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이 방안의 컨셉은 "놀이 박상, 삶의 지혜와 예술을 담다"로, 박상의 다층적인 면모를 담아낸 상품과 체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념품으로는 『놀이집』 테마 문구류를 개발하여 박상의 시구, 친필 서체 등을 활용한 노트, 엽서, 책갈피 등을 제작한다. 특히 그의 자연 시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을 적용하여 문학적 감성을 더할 수 있다. 또한, ‘고양이 전설’은 박상의 강직한 성품과 함께 극적인 운명적 요소를 담고 있어 대중적 흥미를 유발하는 스토리텔링 소재이므로, 이를 모티브로 한 봉제 인형, 열쇠고리, 일러스트 굿즈 등 친근하고 대중적인 캐릭터 상품을 개발한다. 삼인대 상징 기념품으로는 관인 형태의 도장, 소나무잎을 모티브로 한 액세서리 등 삼인대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기념품을 제작하여 방문객에게 역사적 가치를 전달한다. 무등산 등산로에 설치될 시 현판 디자인을 축소하여 제작한 무등산 시 현판 미니어처는 박상의 시와 무등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기념할 수 있는 소장 가치 있는 기념품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주, 나주, 순창 등 박상 관련 지역의 특산품(예: 한과, 전통주)에 박상 관련 디자인이나 시구를 적용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객에게는 지역의 맛과 문화를 함께 선물할 수 있도록 한다.

놀이 박상 문화관광 프로젝트는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경험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문학 기행 코스는 박상의 생애와 관련된 물리적 유적지(월봉서원, 송호영당, 삼인대 등)를 방문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여기에 무등산 등산로 현판에 QR 코드를 삽입하여 디지털 콘텐츠(오디오 시 낭송, 역사 해설)로 연결하는 것은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정보 제공과 몰입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AR/VR, 웹툰, 게임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 개발은 방문객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아도 박상의 스토리를 경험하고, 현장 방문 시에는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현대 관광객의 정보 소비 방식과 디지털 친숙도를 고려한 필수적인 전략이다. 따라서 놀이 박상 문화관광 프로젝트는 단순히 유적지를 정비하는 것을 넘어,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물리적 공간에서의 경험을 확장하고, 디지털 공간에서도 박상의 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IT 전문가와 문화 콘텐츠 전문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또한, 고양이 전설과 신비 복위 장소는 박상의 삶에서 가장 극적이고 대중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재현 퍼포먼스(삼인대)나 웹툰/애니메이션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감성적 연결을 유도하며, 역사적 인물을 더욱 생생하게 만든다. 성공적인 역사 드라마나 게임이 각색을 통해 재미를 추구하는 것처럼, 박상의 이야기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박상의 삶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 지도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특히 ‘고양이 전설’은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강력한 스토리 라인이므로, 이를 활용한 캐릭터 개발 및 상품화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념품 및 체험 프로그램 다양화는 방문객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입장료 수익에 의존하기보다는, 박상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예: 문구류, 캐릭터 상품)과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역 내 장인, 예술가, 소상공인과의 협력을 통해 박상 테마의 고품질 기념품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확장하여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관광 수익의 일부를 지역 문화유산 보존 및 지역사회 발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4. 맺음말

본 연구는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문인이자 강직한 선비였던 놀재 박상(朴祥, 1474~1530)의 문집 『놀이재집(訥齋集)』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이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며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놀이재집』은 당대 지식인의 사상과 문학적 면모를 담고 있는 귀중한 문헌으로, 박상의 강직한 선비 정신, 유불도 사상의 융합적 사유, 그리고 자연 친화적 시풍은 현대 사회에 다양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교육 자료로서 『놀이재집』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박상의 생애와 문학은 인문 교육 및 윤리 교육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중종 비 신씨 복위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그의 대의명분 중시 사상은 인성 교육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그의 문학 작품은 중·고등학교 한문과 및 한국 산문 교육의 심화 학습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실제 교수·학습 지도안 설계를 통해 그의 자연 친화적 시가 작품이 현대 사회의 생태전환교육 및 인성 함양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소재가 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그의 강직

한 관료 생활은 현대 사회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공직자 윤리를 가르치는 데 효과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서 『놀재집』의 잠재력을 탐색하였다. 박상의 생애와 작품에 나타난 극적인 요소들은 웹툰,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원천 서사가 될 수 있다. 특히 ‘놀재 박상과 고양이 전설’과 같은 이야기는 판타지 요소를 가미한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으로 개발되어 대중적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신비 복위 장소와 우부리 장살 사건은 정치 사극이나 수사극 형태로 변주하여 현대적 시사점을 담은 드라마로 제작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콘텐츠는 OSMU 전략을 통해 파급력을 극대화하고, 박상의 강직함, 정의로움, 연대 정신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놀재집』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송호영당을 비롯한 그의 활동지 및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문학 기행 코스 개발과 연계 상품 개발은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광주, 나주, 순창 등 박상 관련 문화유산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활용하여 ‘호남 문학·절의 투어’와 같은 광역 관광 코스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무등산 등산로에 유산시 현판을 설치하고 QR코드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순창 삼인대 기념 행사를 몰입형 퍼포먼스로 발전시키고, 『놀재집』 테마 문구류, ‘고양이 전설’ 캐릭터 상품, 삼인대 상징 기념품 등 지역 특화 기념품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놀재집』은 옛 문헌에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의 교육, 문화콘텐츠, 지역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활용 방안들이 실제 정책 및 사업으로 이어져 고전의 대중적 확산과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 콘텐츠 제작자, 지역사회 및 정부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놀이 박상,
시대의 기억과 현대적 지향

☞ ≪ 토론문

「놀이 박상의 가족시에 나타난 감성 양상」에 대한 토론문

강동석 전남대학교

「기억되는 이름, 기념되는 장소」에 대한 토론문

강성규 고려대학교

「박상 놀재집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토론문

정인서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놀이 박상의 가족시에 나타난 감성 양상』에 대한 토론문

강동석(한국학호남진흥원)

논고는 박상이 창작한 16제 20수 가족에 관한 작품을 바탕으로 그 감성에 대한 결을 세 층위, 곧 상위층 조부와 형님, 동위층 진양 유씨, 하위층 아우와 아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내용과 이면적 함의를 감사와 그리움, 슬픔과 애뜻함, 사랑과 바람으로 결론을 내린 글입니다.

이미 논자는 박상에 대한 논문 몇 편과 저서를 발표한 바 있기에 박상의 한시 작품에 관류하고 있는 사상, 내용, 감정, 언외지의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시도한 바 없는 박상 연구의 빈틈을 찾아 ‘가족시’라는 장르를 설정하고 그 테마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의미 있는 작업입니다. 글을 읽으며 몇 가지 의문과 첨언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1. 왜 가족시인가?

박상의 한시에서 연구해야 하는 가족시가 다른 작가에게서 보이지 않는 독특한 특성이 도출되며, 그것이 한문학사에서 유의미하게 밝혀져야 하는 정당성을 확보한다면 그것은 유의미한 작업입니다. 전통 한문학에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감사,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상 가족시를 연구해야만 하는 이유, 그것이 지닌 함의가 문학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제시하는 것은 연구의 정당성, 타당성 확보에 좋을 듯합니다. 또한 감성 양상의 차이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형에 대한 그리움과 미움이 상충하며 형상화되는 작품이 있는데, 그 동인이 무엇이며 그것이 작품에 반영되고 있는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한다든지, 또는 아들에 대한 바람과 원망이 공존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든지 등이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논술한 방식이 독자에게는 자칫 도식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작품 번역, 해석의 관점, 대우를 맞춘 번역, ‘박[匏]’의 이미지가 상징하는 것.

3페이지 첫 번째 인용문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작품은 조부와 자신을 대조적으로 대우(對偶)에 맞춰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개 율시에서 함련과 경련의 대우는 물론이나, 이 작품은 수련까지 대우를 맞춰 조부와 자신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련입니다. 우선 직역은 “과거 급제 계승한 건 시서가 있어서요, 박 넝쿨 길러낸 건 조부님의 애쓰신 덕분”이며, 의역은 “과거 급제는 시서의 유풍으로 계승하였거니와, 후손 번창은 조부님께서 애써 길러내신 덕분이라네.”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문면만 보면 박 넝쿨이 자손의 번창 정도로 보면 좋아 보입니다. 실제 『시경(詩經)』에서 ‘오이[瓜]’, ‘넝쿨[蔓]’ 등은 자손의 번창이라는 시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박[匏]’은 『논어(論語)』 「양화(陽貨)」, 『주역(周易)』 「구괘(姤卦)」 등 경서에서, ‘한곳에 매여 먹지 못하는 물건’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경련의 출구가 과거 급제를 말하고 있으므로 다른 시각의 접근도 필요해 보입니다.

3. ‘말하는 시’, ‘보여주는 시’

논자는 박상 시에서 감정 표출의 미학적 의미를 밝히며 “박상 가족시에 나타난 감정 표출의 미학적 의미는 다시 말해 감정을 숨기지 않는 솔직함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솔직함이 평소 성격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한문학에서 “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다[詩言志].”라는 말로 정의합니다. 곧 시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정을 절제하여 우의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정을 드러냅니다. 혹자는 그것을 ‘말하기’와 ‘보여주기’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곧 시인이 독자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있는 시는 이해하기 쉬운 반면 자칫 식상하게 느껴지거나 거부감을 일으키기 쉽지만, 보여주기만 하는 시는 무슨 말인지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아 자칫 추상적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박상은 이를 융합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박상을 해동강서시파로 주장한 연구자는 “당송(唐宋)의 결합에서 나오는 종일(縱逸)의 미학”으로 평가합니다. 즉 박상의 한시는 때로 보여주는 작품이 많아 강서시파의 유형으로 보기도 하고 있는 그대로 감정을 표출하는 당시파의 유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논자께서 제시하고 있는 박상 시의 미학적 의미가 숨기지 않는 솔직함이며, 앞서 살폈던 작품 「展祖考墓」의 까다로운 전거로 본다면, 박상의 가족시에서도 선인들이 언급한 기건(奇健), 기굴(奇崛), 기고(奇古) 등의 평이 일정 부분 부합되는 면도 있습니다. 강서시파로 분류되고 있는 문인들과 반세기 이후의 삼당시인과의 관계를 박상에게서 찾는 것도 한시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듯한데, 논자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이상 세 가지 관점에서 토론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전체 주제 및 내용에 관한 것, 작품의 번역과 해석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미학 관련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나 쟁점이 있는 부분은 없어 정치하게 논의할 토론문을 작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훗날 논고를 다듬고 살을 덧대어 옥고가 완성되길 바랍니다.

**정하정 선생님의 「기억되는 이름, 기념되는 장소
-놀재 박상의 충절에 대한 기억과 표상 형성에 관하여-」에 대한 토론문**

강성규(고려대학교)

선생님의 발표는 충절의 표상으로서 놀재 박상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방식을 ‘집단 기억’과 ‘문화 기억’의 개념으로 읽어내고자 한 연구로 이해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되기에, 저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의 기회를 주신 배려에 답하고자 하오니 양해를 구합니다.

1. 본문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소요당(逍遙堂)은 양천에 있었던 심정(沈貞, 1471~1531)의 별서로, 박상을 비롯하여 신용개(申用溉), 남곤(南袞), 장옥(張玉) 등의 인물이 시를 지어준 것으로 알려진 공간입니다. 그 가운데 박상은 시에서 ‘반산(半山)’과 ‘추학(秋壑)’이라는 시어를 사용하여 송나라 왕안석(王安石)과 가사도(賈似道)에 빗대 심정을 풍자하였습니다. 이는 제영의 대상 공간에 대해 묘사하고, 해당 인물의 행적을 형용하며,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 일반적인 제영시(題詠詩)를 지으면서도 당시 사립들에 의해 탄핵을 받았던 인물에게 ‘온전한 헌사(獻辭)’를 허용하지 않는 박상의 강직한 성품과 고결한 기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충절’로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폐위된 단경왕후(端敬王后) 신씨(愼氏)의 복위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던 ‘삼인대(三印臺)’와 비교한다면 장소에 담긴 의미의 결이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청합니다.

2. 또한 소요당의 축조와 함께 작성된 여러 제영시들 가운데 박상의 「제소요당(題逍遙堂)」이 인구에 회자되는 ‘일화’를 통해 ‘대표성’을 획득하고 ‘교유’에서 ‘풍자’로 이른바 ‘장소성(場所性)’의 전환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심정을 풍자했던 제영시를 통해서 박상의 성품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소요당과 얽힌 박상의 「제소요당」은 분명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요당은 어디까지나 심정의 별서라는 점에서 볼 때, ‘소요당’ 자체가 박상의 성품을 표상하고 기념하는 공간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소요당'과 '소요정'이 동일한 장소명이지만, 박상의 시제가 「제소요당」이라는 점과 심정의 손자 심수경의 『견한잡록』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소요당'으로 호칭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3장 1절의 제목에도 이러한 취지에서 '소요당'으로 되어 있는 듯합니다. 다만, 본문에서는 '소요당'과 '소요정'이 혼용되어 있기에 다소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4.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적 지지체'라는 용어는 다소 생소하게 여겨집니다. 이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상 놀재집의 현대적 활용」에 대한 토론문

정인서(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놀재 박상 선생은 ‘광주정신’을 말할 때 그 뿌리가 되는 분 중의 한 분이다. 특히 절의정신을 이야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다. 그렇지만 광주는 문화도시를 이야기하고, 광주정신을 이야기하면서도 수많은 콘텐츠 원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상과 같은 언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옛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묶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기만 하다.

이런 시기에 김광명 박사의 발표문은 교육, 문화콘텐츠, 지역 문화관광을 중심으로 광주에서 현대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시의적절하다. 이밖에 회재 박광옥, 삼봉 김세근을 비롯하여 송강 정철, 서하당 김성원 등 광주와 관련이 있는 분들을 모두 오늘에 불러와 우리는 지역의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발표문에 집중하여 놀재 박상 선생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은 차치하고, 교육·문화 콘텐츠·지역문화관광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을 먼저 이야기하고, 일부 미흡하거나 현실적 제약이 예상되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토론자가 생각하는 현대적 활용의 대안 또는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하겠다.

첫째는 교육·문화콘텐츠·지역문화관광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다.

1) 발표문은 교육적 의의가 분명하다. 《놀재집》을 2022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과 접목하여 한시 감상·생태 전환교육·인성 함양 등의 구체적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했다. 작품 분석-토의-창작 활동을 3단계로 설계하여 학생 참여도를 높이고, 박상의 절의·청렴 정신을 현대 윤리교육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고전 활용 교육 모델로서 타당성이 높다.

2) 문화콘텐츠 원천 서사로서 경쟁력이 있다. 발표문은 ‘신비 복위 장소’ ‘우부리 장살’ ‘고양이 전설’ 등 서사 요소를 웹툰·애니메이션·드라마·게임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성공 사례로 <신과 함께>·<광해>·<자산어보>를 비교하며 현실성을 높였다. OSMU 전략, 글로벌시장 겨냥, 교육적 메시지 결합 등의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여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이는 고전의 현대적 재탄생 경로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3) 지역문화관광 활성화 구상이 탄탄하다. 광주-순창-나주를 잇는 ‘절의와 시적 성찰의 여정’ 문학 기행, 무등산 시비 설치와 QR 해설, 갈재길·삼인대 연계 코스 등 체험형 서사 공간 설계가 돋보인다. 지역 특화 상품 개발과 축제-이벤트 제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디지털-생태 융합 접근이 창의적이다. QR 코드, 모바일 앱, 음성 낭송 등 디지털 매체를 접목하여 고전 접근성을 높였고, 자연 친화적 시 세계를 생태관광-힐링 프로그램과 연동시켰다. 이는 MZ 세대 취향과 지속가능 관광 트렌드를 모두 반영한 기획이다.

5) 연구 기반이 탄탄하다. 발표문은 목판본·필사본·유적·초상화 등 1·2차 자료를 폭넓게 조사하고, 성공 사례(웹툰 <신과 함께>, 영화 <광해>, <자산어보>)를 비교하여 근거를 제시

했다. 이는 학술적 신뢰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동시에 담보한다. 이러한 장점은 교육·콘텐츠·관광의 선순환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는 미흡하거나 현실적 제약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 1) 발표문은 박상 중심 서사에 편중되어 반복과 식상의 위험이 있다. ‘고양이 전설’이 같은 연산군 시절의 장순손에게도 거의 동일한 구조로 전승된다는 점을 발표문이 충분히 검증·차별화하지 못했다. 스토리 중복은 콘텐츠 독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 2) 과도한 OSMU 낙관이다. 웹툰-드라마-게임 동시 전개는 높은 제작비와 전문 인력이 전제된다. 지역 단위에서 투자·배급망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획 단계에 머물 위험이 크다.
- 3) 교육 현장 적용의 현실성이다. 발표자가 주장하는 블록타임은 ‘3차시 연속 편성’ 방식으로, 한시 작품을 중심으로 한 이해-탐구-창작 단계를 한 번에 몰입형으로 수행하도록 시간 구조를 재편한 교수·학습 전략인데, 학교 일정과 평가 구조상 편성 난이도가 높다. 또한 한문 교사 연수·교재 개발 예산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확산이 제한적이다.

셋째는 현대적 활용의 대안 또는 보완이다.

- 1) 지역 한시 풀(pool) 확장을 제안한다. 발표문이 박상의 『놀이집』을 중심 축으로 삼은 점은 선명성이 있다. 그러나 박상 작품만으로 한시 교육 모델을 설계하면 반복·식상 우려가 있다. 절의정신이라는 주제도 편협하게 보일 수 있다. 광주·전남에는 박상 외에도 기대승·정철·김성원 등의 절의·풍류 한시가 다수 있다. 지역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광주 한시 100선’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한 인물 중심 서사와 다인물 비교 서사를 모두 체험할 수 있다.
- 2) 문화콘텐츠 확장 타당성이다. 발표문은 ‘우부리 장살’ ‘신비 복위 상소’ ‘고양이 설화’를 서사 자원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무등산 기행 시(詩) 클러스터와 임진왜란·호남 의병 한시를 추가하면 서사 외연이 넓어진다. 서사 확장은 같은 세계관 안에서 시즌제·유니버스 형식으로 콘텐츠를 누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박상과 장순손 모두 고양이 설화를 공유한다. 고증·차별화 전략 없이 콘텐츠를 제작하면 독창성이 약해진다. 또 OSMU 확장안은 제작비와 배급망이 여전히 과제이다. 특히 게임·드라마 동시 기획은 지방 재정만으로는 버겁다.
- 3) 지역문화관광 설계 보완이다. 발표문에서 제시한 ‘무등산-삼인대-갈재길’ 코스는 박상 중심 동선이다. 무등산 시비길 자체가 이미 박상·정철·김성원 등의 작품을 품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여 ‘무등산 다성(多聲) 시문학 둘레길’로 라이트 리브랜딩하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단일 인물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 4) 디지털·생태 융합의 현실성이다. 발표문이 제안한 QR·앱 해설은 유지비가 적고 콘텐츠 갱신이 용이하다. 시·도 교육청의 웹 기반 ‘한시 지도’ 오픈 API로 자료를 통일·공유하면 개발 비용을 줄이면서도 확장성이 확보된다. 또한 무등산 생태 트레일과 한시 해설을 결합하여 ‘시 읽는 숲 세미나’를 운영하면 탄소 중립·웰니스 트렌드를 모두 충족한다.
- 5) ‘메타버스 한시 교실’ 공동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역 대학·스타트업 스튜디오를 공유해 캐릭터·배경을 템플릿화하고, 교사·학생이 직접 낭송·재현 콘텐츠를 제작한다.

결론적으로 발표문은 학술적 충실성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겸비했으나, 서사 독창성 확보, 자원-인프라-현장 적용 방안의 세부 설계가 보완되어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기존 인프라를 재활용하고, 저예산·참여형·다세대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해 발표문의 한계와 현실적 제약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박상 중심 편중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